참 여
협 력
영 광

서울大同窓會報

2015년 8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월간|제449호

www.snua.or.k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開學1895년·統合開校1946년

국권회복 최전선에 선 서울대인

"민족자존 위해 노력했던 서울대인 정신 다시 새기자"

광복70주년

특별기고
徐廷和 회장

대한제국의 위기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됐다. 한반도에 개입한 열강 간의 세력균형을 유도해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던 고종의 중립외교는 러시아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러일전쟁 와중에 한국을 무단으로 점령한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체결을 강요해 대한제국-러시아간 외교관계를 단절시키는 한편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이후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대한시설세목(對韓施設細目)' 등으로 구체화된 뒤, 1905년 내정권과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으로 이어졌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국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였다. 러일전쟁 직후 보름 만에 한일의정서를 강요당한 고종은 일본과 전쟁 중이던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연이어 친서를 보내 일본군의 한반도 점유가 불법임을 강조하고 대한제국의 독립은 국제법상 보전 받아야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외교활동의 연장선에 1907년 헤이그 특사파견이 존재한다.

헤이그 특사의 당당한 외교

1899년 러시아의 제안에 의해 처음 개최된 만국평화회의는, 서구 강대국 사이에 증가하던 군비경쟁을 조정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였다. 1907년 개최된 제2차 회의 당시 한국에도 의석이 배정돼 있었으나 외교권 대리자를 자처한 일본의 방해로 공식 사절을 파견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이상설, 이 준, 이위종을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미국 선교사 헐버트를 안내역으로 배정해 특사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본의 방해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흔히 알려진 '밀사(密使)'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들은 숙소에 당당히 태극기를 내걸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임을 분명히 했다.

본회의장 입장이 거부되자 회의장 앞에서 일본정부의 한국 외교권 강점이 부당하며 한국은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 명백히 독립국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각국 기자단이 결성한 국제협회에 귀빈으로 초청받아 적극적인 언론전을 펼치는 등, 매우 세련된 외교 감각을 보였다. 그로부터 대략 10년 남짓 전인 1894년 청일전쟁과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정부를 강제 점거당하고 왕후가 시해당하는 폭거를 겪었음에도 아무런 외교전략도 세우지 못했던 상황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실력 갖춰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헤이그 특사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사단의 정사(正使)인 이상설은 특사 파견 당시 37세로, 1894년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 교수, 한성사범학교 교관, 탁지부 재무관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유학 관료였으나 독학으로 외국어와 국제법을 학습하는 등 개명한 면모를 보였던 인물이다.

한편 이위종은 고종의 심복이었던 이용익의 아들로서, 20세 때부터 부친을 따라 미국, 러시아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실력을 갖췄다. 헤이그 당시에는 30세로, 헐버트와 함께 특사단의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면에 계속〉

2012년 모교 법대 서암법학관 앞에 세워진 이 준 열사 동상. 김경한 前법대동창회장이 제작비 1억원을 쾌척했으며, 최인수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가 제작했다.

관악춘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朴聖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의 교수
본보 논설위원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서울대학교 창학 120주년인 해다. 서울대의 창학 기준은 법과대학 전신인 법관양성소가 설립된 1895년이다. 뜻깊은 해를 맞아 곳곳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법관양성소 1기생으로 '실천하는 지식인'의 표상이었던 이 준(1859~1907) 열사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행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연극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관악극회(대표 윤완석, 경제 73-77)가 이 준 열사를 비롯한 헤이그 특사의 활약과 아픔을 다룬 연극 '헤이그 1907'을 공연하고(8월 15일~9월 6일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국립대구박물관에선 '애국의 길, 국채보상운동특별전'(7월 14일~9월 6일)을 통해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소장이던 이 준 열사의 경제주권회복운동을 조명한다.

이 준 열사는 1888년 초시에 합격한 뒤 1907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할 때까지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강직한 공직자이자 법조인, 교육자, 애국지사로 일관했다.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된 뒤 조신들의 비행을 파헤치다 곧바로 면직됐지만 좌절하거나 조정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는커녕 독립협회 평의장으로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1899년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된 뒤 친일주구들의 활동이 노골화하자 대한보안회를 결성해 황무지개척권을 얻으려는 일제의 음모를 폭로했고, 송병준 등 친일분자들이 일진회를 통해 매국활동을 시작하자 윤하영 양한묵 등과 함께 공진회를 만들어 대항했다.

전 재산을 들여 보광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청년 계몽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1906년 평리원 검사로 임명됐으나 친일파 법무대신 이하영 등을 고소했다 파면된 뒤, 고종황제의 특사로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다. 을사늑약의 불법성 폭로와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 호소를 위해 갔으나 일제의 방해로 끝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자 현지에서 순국했다. 대한민국은 광복 5년 만에 6·25전쟁이란 참담한 동족상잔을 겪고 잿더미 위에 조국을 재건했다. 1960년 79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만8천달러로 3백54배 이상 급증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광복은 물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은 조국이 내게 무엇을 해줬는지 묻기보다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이 준 열사같은 이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서울대 법대 1회, 나아가 서울대 1회 졸업생으로 이 준 열사가 지키고 실천한 법치와 정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일생동안 국가 사회의 기대와 성원 속에 살아가는 서울대인 모두의 귀감이자 푯대임에 틀림없다.

모교는 이 준 열사의 이같은 삶을 기려 2012년 4월 25일 서암법학관(72동) 앞에 동상을 세웠다.

이 준 열사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해 조국의 생명의 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조국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 빈부격차 해소, 법과 질서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준 열사의 한국혼을 가슴에 새기고 바르게 실천할 때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빛나는 조국과 모교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INSIDE
4 본회소식 제12회 동문바둑대회 | 10~11 동문을 찾아서 간송미술문화재단 全晟雨 이사장 | 16~17 모교 기획 서울대 학생들의 여름방학 별지부록 : 모교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

느티나무 광장

潘基文 사무총장님께 드리는 편지

李相起
서양사학81-87
아시아엔 발행인·본보 논설위원

존경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

8대에 이어 9대 유엔사무총장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다는 평가가 많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17개월 남은 임기, 마무리 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기억나시는지요? 유엔으로 출국하시기 전날, 그러니까 2006년 11월 14일 총장님 환송회연에서 두 가지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는 고은 시인이 총장님께 호를 선사했지요. '석운(昔雲)'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석'자는 '오래된'이란 뜻도 있어요. 오랜 꿈을 이루셨으니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조중건 대한항공 고문이 축하노래를 불렀죠. 조 고문은 객석을 옮겨 다니며 '이별의 노래'를 3절부터 거꾸로 부르곤 무대 앞에서 마무리했지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우리라/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2007년 1월 21일 밤, 임시공관으로 초대해주신 총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지요. "퇴임 후 반기문재단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야지요? 수천억 들 텐데…" "전 세계인이 1달러씩만 모으면 60억 달러,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몇 사람이 큰돈 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모으는 게 훨씬 가치도 있고 보람도 많겠지요."

2007년 4월호 '서울대동창회보'의 이 난을 통해 '반기문 파운데이션을 아시나요?'란 제목의 칼럼을 썼지요.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준 기억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어느 외신 여기자가 총장님 별명을 Slippery Eel이라고 붙여주었다며 그리 싫어하지 않으셨지요?

아마 내년 가을쯤 되면 한국에서 총장님 부르는 소리가 하나둘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때 총장님 그 별명을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한반도의 남쪽 문제도 무척 중요하지요. 하지만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기후변화, 전쟁과 분쟁, 종교갈등, 질병과 기아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살리는 일이 총장님께는 훨씬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선 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반기문재단 설립,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교 120년 서울대의 최고 자랑 중 하나인 '유엔사무총장 배출'이 이제 전세계에 유래없는 '1인1달러 모금운동'으로 이어지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일까요? 총장님. 제가 좋아하는 시구로 편지를 마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2015년 7월 마지막 일요일 밤 이상기 드림

동문 칼럼

서울대 경영대학이 나아갈 길

南益鉉
경영81-85
모교 경영대학장·벤처경영기업가센터장

경영대학은 지금까지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목적 하에 경영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더해 우리나라 풀뿌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벤처 창업가들을 배출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대 경영대학은 도전적 벤처 기업가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4년 3월 '벤처경영 연합전공'을 신설하고, 동년 9월에는 중소기업청과 연합해 '벤처경영기업가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학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의 주된 3가지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가 정신을 지닌 실천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참여형 실전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론 실습 과목에서는 이론과 실전을 연계하기 위해 학생들이 팀을 이뤄 사업아이템을 제시하면 실제 사업화 진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Cash Class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IT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Web)/앱(App) 프로그래밍 교육인 피로그래밍(P.rogramming)과 CHOCO(초단기 초급 코딩교육)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해외 창업연수의 일환으로서,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미국 실리콘밸리를 40여 명의 인원이 방문해 서울대 미국 북가주 동문과 성공한 한인 벤처 사업가들과의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신생 벤처기업과 창업교육현장을 방문해 실리콘밸리의 창업생태계를 체험했습니다.

둘째, 서울대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창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대 창업경진대회(SNUVC)와 'Be the Rocket 2015'라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팀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동문 창업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멘토단을 출범시켜 동문 창업가 및 재학생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멘토-멘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생생한 자문을 받아 간접적인 창업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업·기업가 정신 연구 분야의 선도적 학문 가치 창출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에 '세계 벤처창업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연구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의 배출을 지속하고, 또한 다양한 창업교육과 지원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이 벤처창업에 필요한 실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미래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서울大同窓會報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金英豪
인쇄인 朴承熙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or.kr
홍보본부장 안흥섭 · 편집장 김남주 · 편집부 기자 변정수, 박수진

학생기자
김예원 (언론정보13入)
박준모 (언론정보 09入)
이시원 (독문14入)
김성구 (서양사 13入)
박성연 (국문11入)
방준휘 (전기정보12入)
이지은 (정치외교15入)
김시현 (국문 10入)
박종석 (사회복지석사과정)
양진수 (농경제사회09入)
최세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기자의 소리

'외국어연극제'를 아시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외국어연극제(이하 외연제)가 막을 연다.

외연제란, 인문대학 내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들이 주체로 각 과에 대표되는 작품들을 가지고 원어로 무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은 9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각 과마다 다양하게 하며 불어불문학과의 'Théâtre Fantastique'에서는 5월과 9월, 1년에 총 두 번 공연을 한다.

지난 1997년 제1회 외연제에서는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네 학과 학생들만 원어연극을 올렸지만 그 이듬해부터 노어노문학과와 서어서문학과도 외연제에 참여하기 시작해 현재 여섯 학과 체제를 갖추게 됐다. 홍기선 영문학과장의 말에 따르면 영어연극의 경우 58학번 선배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

보통은 본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2~3주의 연습기간을 통해 배우들의 연기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시간을 먼저 가진다. 이를 모놀로그 준비기간이라 칭하며 이 때 각 배우들은 자기가 원하는 한국어 대본을 고르고 3~10분 정도 길이의 독백을 준비한다. 통통 튀는 캐릭터와 가지각색의 상황이 담긴 대본들을 선택해 연기해본다는 것이 모놀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각색된 대본을 가지고 바로 본 공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보통 5~6주의 연습 이후 공연을 올리게 된다.

비록 외국어전공 학과들이 주체가 되어 외연제를 열지만, 그 참여인원에 그 과 재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문대뿐만 아니라 사범대, 미대, 사회대, 공대 등 너 나 할 것 없이 그 언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배워보고 싶었던 언어를 학습한다는 취지하에 방학 기간 동안 외연제 팀에 지원을 하고 평균 2개월 반 동안 원전을 가지고 읽고 외우는 방법을 배운다.

올해 불문과는 9월 1~2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자크와 그의 주인(디드로)'을, 독문과는 9월 3~4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변신(카프카)'을, 중문과는 9월 8~9일 동일 장소에서 '허삼관 매혈기(위화)'를 공연한다. 또 아시아문명학부는 9월 10~11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소네자키 숲의 정사(치카마츠 몬자에몬)'를, 서문과는 9월 14~15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Siete gritos en el mar'를, 영문과는 9월 17~18일 두레문예관에서 '한여름밤의 꿈(세익스피어)'을, 노문과는 9월 17~18일 두레문예관 공연장에서 '새벽하늘의 별들(알렉산드르 갈린)'을 올린다. 동문 선배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이시원(독문14입) 학생기자

법관양성소 졸업생 독립운동에 앞장

관립학교 생도들 3·1운동 만세시위 주동해

〈1면에 이어〉

이러한 인적자원들이야말로 1897년 황제국 선포 이후 대한제국이 추구했던 독립외교정책의 결실이며 헤이그에서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다.

특히 이 준은 법관양성소 제1회 졸업생이자 평리원(오늘날의 대법원) 검사를 역임했던 법관이었으며, 파견 당시 49세였던 중견 관료였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이자 현재 서울대 법과대학의 시초로서, 서울대는 1895년을 본교 '개학(開學)'의 기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특사단의 실질적 리더 李 儁

법관양성소는 '법학통론(法學通論)' 등 개론적인 과목 외에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실무적인 법학과목을 교수하여 실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준 또한 국제법을 포함한 서구의 근대 법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중견 법조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특사단의 실질적인 리더는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열강이 특사단의 호소를 외면하자 끝내 이 준은 곡기(穀氣)를 끊기 시작했으며, 의식을 잃은 듯 몇 시간을 누워있다가도 방문한 서구의 기자들에게 '내 조국을 구해주십시오.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1907년 7월 20일자 헤이그 현지에서 발간된 '만국평화회의보') 이 호소는 그대로 그의 유언이 되었다.

법관양성소 출신인 (좌로부터)이 준·함태영·홍 진 동문.

서울대학교는 국권수호운동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최초의 서울대인으로서 이 준 열사를 학교 차원에서 추앙해오고 있다.

법관양성소는 이 준 외에도 함태영(한성재판소 판사), 홍 진(충주재판소 검사, 평리원 판사) 등 대한제국기 주요 법조인들이 양성하는 산실이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법관양성소 졸업생은 한국 사법체계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다. 서울대총동창회 산하 '서울대학교 120년사 편찬위원회'가 수행 중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사법관리를 포함한 수천 명의 일본인 관료들을 강제로 한국 정부에 임용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제도 또한 일본인 관료들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법관양성소는 결국 본래의 위상을 잃고 1909년 폐지에 이른다. 그러나 함태영, 홍 진 등이 병합 이후 각각 3·1운동 민족대표, 상해임시정부 의원으로 활약하는 등 법관양성소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민족적 모범으로서 족적을 남긴 바 있다.

전문학교 민족적 자의식 가져

한편 법관양성소는 1909년 법학교(法學校)에 이어 1911년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 지금의 전문대학급)로 그 명맥을 잇게 된다. 구한말 관립학교로서 설치했다가 일제강점기 전문학교로 잔존한 교육기관들은 경성전수학교 외에도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 경성고보 사범과(京城高普 師範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학교이면서 대한제국기 관립학교의 후신이라는 민족적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120년사 편찬위원회'는 1919년 3.1운동 당시 경성의 학전문학교, 경성전수학교를 포함한 '구한국기 관립학교'의 생도들이 만세시위를 주동하여 대거 구금되었다는 기사가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등 일본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법관양성소를 시초로 한 대한제국기 관립학교들의 자의식과 책임감이 일제강점기 전문학교들에게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이들 '전문학교'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광복 이후 1946년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통해서 오늘날의 서울대학교로 통합되었음을 감안할 때, 구한말의 이 준 열사, 일제강점기 전문학교 학생들이 보여줬던 의기야말로 오늘날 서울대인의 존숭해야할 모범일 것이다.

광복 이후 70년이 지났으나 조국은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산업화 이후 최대의 불황마저 겪고 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도 날로 증가하여 조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총동창회는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의 역사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편찬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민족의 자존을 위해 노력했던 서울대인의 정신을 다시 새기고자 한다.

徐廷和회장, 연극 '헤이그1907'에 2천만원 후원

통일나눔펀드에도 적극 동참

본회 서정화 회장이 연극동문회(회장 이순재) 산하 관악극회(대표 윤완석)가 서울대 개학 120주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올리는 연극 '헤이그 1907'을 위해 2천만원을 후원했다.

서 회장은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통일나눔펀드' 모금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장관급)을 역임한 서 회장은 그동안 정기총회, 신년회 등 여러 동문 행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서울대인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선봉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서정화 회장이 연극동문회 이순재 회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 좌로부터 박승희 사무총장, 서정화 회장, 연극동문회 이순재 회장, 관악극회 윤완석 대표

한편 '헤이그 1907'은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특사 이 준·이상설·이위종의 체류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 작품의 예술감독은 이순재(철학54-58) 동문이, 연출은 이수인(지리81-85) 극단 떼아뜨르 봄날 상임연출가가 맡았다.

이 준 역은 배우 송흥진, 이상설 역은 배우 이 길, 이위종 역은 박재민(체육교육02-10)동문이 연기한다. 이순재 예술감독은 황제 고종 역할로도 출연한다.

〈문의 : 070-7788-5331〉

만평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2백43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7월 1일~31일 5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6월 30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2백38명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2백43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이창호(기계공학55-61) 동문 : 공대용 자 ▲김철위(치의학57-61) 동문 : 1978년 공무원증, 70-80년대 봉급명세서류, 대학발전세미나·심포지엄·워크샵 자료집류, 61년 졸업식 사진 등 행사사진류, 1970 치원 학보, 서울대치대 초대학장 동상 제막 초대장, 박물관 안내책자 등 ▲유천근(교육60-64) 동문 : 사범대학 17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자료, 사범대학 17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자료 ▲이종철(인류학62-66) 동문 : 정년퇴임기념품, 수업노트, 인류학과 동문회지, 태권도부 기념품 등 ▲박노동(농화학70-77) 동문 : 70년대 수업노트류, '상록', 74년 입학 고사 시험지 및 답안지 등

선후배 동문 하나 된 '오로'의 향연

단체전 서울대 바둑부·최강조 06학번 李昊源 동문 우승

지난 7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에서 동문 및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무더위도 한풀 꺾인 가운데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한 동문 바둑 애호가들이 일찌감치 대회장에 도착했다. 총 2백87명의 참가자들은 개인전 7개조(2백19명), 단체전 13팀(68명)으로 나뉘어 드넓은 실내를 가득 메웠다. 재학생 20여 명과 교직원 2명, 15학번 신입생부터 50학번 황긍연(생물교육50-54) 동문까지 올해도 '모교의 축소판'처럼 다양한 구성이었다.

이날 대회 운영위원장으로 새롭게 위촉한 박희백 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동문바둑대회 운영위원단으로 본회 강인구 부회장, 박치문(국문68-79) 한국기원 상근부총재, 신병식(미학73-78) 前SBS 논설위원이 참석했으며 심판위원으로 서능욱(프로9단)·남치형(영문94-98·프로초단)·오주성(물리천문07-11·프로2단) 프로 기사가 참석했다. 특별게스트로는 신창석(사회84-91) 동문과 아들인 영재 기사 신민준 3단, 지인으로 탤런트 김하균 씨가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 대국 시작을 알리는 서정화 회장의 징소리가 울리자 대회장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수담(手談)'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바둑돌을 놓는 경쾌한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프로 기사와 다면기 진행

오후 대국에서 이목이 집중된 곳은 신민준 3단과 함께 하는 다면기 이벤트. 프로 기사와 바둑을 두는 기회를 놓칠세라 준비한 여덟 석이 금세 들어찼다. 이세돌 9단의 제자이자 한국 바둑의 유망주로 불리는 신민준 3단은 침착하게 한 수씩 돌아가면서 대국을 뒀다.

대회 막바지로 가면서 경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경하는 동문들로 둘러싸인 중심에는 어김없이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멀리서 참석한 대전·충남지부 산하 관악기우회팀도 단체전 석에서 끝까지 신중을 기했다.

결국 오후 4시를 넘겨 종료된 경기 결과는 젊은 후배 동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단체전 결승에서는 인문대학팀과 서울대 바둑부가 대결해 서울대 바둑부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2000년대 학번들로 나이는 어리지만 지난해 최강조 우승자인 한정관(경제14입) 군을 비롯해 만만찮은 실력자들이 포진한 팀이다. 우승팀은 박희백 운영위원장이 전달한 우승기와 함께 상패와 1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개인전 최강조 결승전도 젊은 바둑인들의 결전이었다. 이호원(전기공학06-11) 동문과 양태우(수리과학부01-11) 동문이 대결 끝에 이호원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호원 동문은 상패와 함께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아래 기보 참조)**

또 개인전 A조 오상태(동물65-69) 동문, B조 윤석태(화학교육73-77) 동문, C조 신형철(재료공학10-15) 동문, D조 정동현(정치78-82) 동문, E조 서재학(의학56-63) 동문, F조 이영훈(사회사업64-68)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결과표 참조)**

서정화 회장과 성낙인 총장이 기념대국을 가졌다.

이날 서정화 회장은 모교 바둑부 재학생을 격려하는 뜻에서 바둑부 김경호(지구과학교육14입)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기념타월과 경품으로 제습기, 복합오븐, 성낙인 총장이 제공한 디지털카메라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서정화 회장이 협찬한 49인치 LED TV는 최준영(국문87입) 동문에게 돌아갔다. 〈박수진 기자〉

개인전 결과

조	수상	선수
최강조	우승	이호원(전기공학06-11)
	준우승	양태우(수리과학부01-11)
A조	우승	오상태(동물65-69)
	준우승	김 욱(농공82-88)
B조	우승	윤석태(화학교육73-77)
	준우승	성영제(경제60-64)
C조	우승	신형철(재료공학10-15)
	준우승	온기현(산업공학73-77)
D조	우승	정동현(정치78-82)
	준우승	위재훈(의학52-58)
E조	우승	서재학(의학56-63)
	준우승	장차희(중앙도서관 소속)
F조	우승	이영훈(사회사업64-68)
	준우승	최희국(AIP 33기)

단체전 결과

조	수상	선수
서울대 바둑부	우승	김형균(컴퓨터공학01-11) 노시정(자유전공09입) 전승호(전기정보공학10입) 한석원(수리과학10입) 한정관(경제14입)
인문대학	준우승	박치문(국문68-79) 신병식(미학73-78) 선석기(중문75-79) 강형근(불문82-87) 최준영(국문87입)

포토존·캐리커처 등 다양한 이벤트존 '인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여러 즐길거리를 제공해 장시간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장 초입에는 포토존을 마련해 바둑대회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다수의 팬을 보유한 '속기의 달인' 서능욱 심판위원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동문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대국을 일찍 마친 동문들에게는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의자와 만화 전공자가 그려주는 캐리커처 코너가 인기를 끌었다.

'피로도 풀고, 추억도 남기고'. 부대행사로 마련된 안마의자와 캐리커처 코너가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최강조 결승전 기보

한순간의 실수로 흑 패배

기보해설
吳周星(물리천문07-11)프로 2단

흑 27은 34로 차단하는 것이 좋았다. 그랬으면 주변 흑의 배석이 좋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진 백이 피곤한 싸움을 해야 했다. 백이 28로 건너가서는 흑이 조금 싱거운 결과. 흑 29부터 35까지의 수순으로 형성한 우상 흑 세력은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생각만큼 위력적이지 않다. 흑 45 이하 49까지 상변을 지킨 수도 느슨했다. 백 50으로 두텁게 안정해서는 백이 실리와 세력 양쪽에서 모두 앞서는 모습이다. 따라서 흑 45로는 48 자리에 씌워서 공격할 자리였다.

흑 59는 61의 곳에 늘어서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나 비세를 의식한 수. 하지만 64로 가르고 나오자 중앙 흑이 답답해졌다. 백 90으로 A자리에 끊어서 중앙 흑 대마를 계속 공격했으면 흑이 곤란했다. 흑 91로 약점을 지키며 대마를 수습해서 흑도 일단 한숨 돌린 모습. 중앙 흑대마가 타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좌변이 엷어졌기 때문에 백 106으로는 109 자리로 지켜두고 싶다. 백 112로도 119자리에 지켜뒀으면 별일 없었다. 흑 119로 흑이 일단 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흑으로서는 아직 미생인 중앙 백 대마와 하변 엷은 곳을 엮어 무언가 이득을 얻어야만 희망이 있는 국면.

백 120은 기세로 아직 중앙 흑이 살아있지 못한 것을 은근히 노리고 있다. 흑도 121로 하나 끊어두고 123으로 뚫고 나온 것이 위아래를 맞보기로 하는 좋은 수순. 137은 악수로 가만히 139로 둘 자리. 바야흐로 점입가경인 국면에서 흑 143이 찬물을 끼얹은 수. 백이 응수하지 않고 144로 하변 흑을 제압해 두자 흑이 곤란해졌다. 흑은 B자리로 이어서 중앙 백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C~I까지 알파벳 순으로 두면 알기 쉽게 안 된다. 그러므로 흑 143으로는 J에 두어서 일단 좌하 백돌을 제압해야 했다. 그 다음에 실리에서 뒤처지게 된 백이 K에 두어 중앙 흑대마를 노리겠지만 흑은 L자리를 선수하고 M으로 단수해서 어렵지 않게 타개할 수 있었다. 이후에 백이 좌변 흑 두 점을 공격하는 그림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피차 어려운 바둑이었다. 백 144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흑이 투석함으로써 바둑은 백의 불계승으로 끝났다.

○ 이호원 동문 ● 양태우 동문

동문 서비스·재학생 지원 향상

총동창회 6대 중점 추진 과제 현황과 하반기 계획

1 모교 연구역량 강화에 6억원 지원

총동창회는 지난 2012년 11월 모교를 위해 5년간 6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교육혁신 및 동영상 사업에 3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7월 20일에는 모교 학술연구비 지원 자금으로 6억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서울대 교직원 학술연구 및 국제교육역량 강화, 이공계 교육 강화, 첨단 과학 교육 강화, 산학협력 강화, 국제 금융인 육성 등에 사용된다.

2 35만 동문 중 28만명 주소 확보해

서정화 회장 취임 전 동창회에서 연락 가능한 회원은 15만명에 불과했다. 명실상부 35만 회원 단체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동문 찾기에 매진한 결과 현재 약 28만명의 동문과 연을 맺었다. 연말까지 총동창회 홈페이지, 단과대학동창회, 지방지부동창회, 각 동기회, 학생회 등이 보유한 동문 자료 수집 등을 통해 35만 회원을 모두 찾을 계획이다.

3 120년사 편찬 올해 말 완료 목표

서울대 120년사 편찬 사업은 올해 말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각 단과대학별 역사 및 세부원고가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후 부록류 및 참고자료 정리, 11월 감수 및 교열, 12월 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위해 동창회에서 4억원(1억2천만원 집행 예정)을 지원했다. 이태진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편찬위원장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본회 하반기 일정

장학금수여식	8월 25일(화)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제11회 동문골프대회	9월 7일(월)	용인 플라자CC
제36회 홈커밍데이 겸 동문가족 친목대회	10월 18일(일)	서울대 대운동장·풍산마당

4 해외 동문 네트워크 구축 확대키로

지난해 일본, 중국총동창회 설립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총동창회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김영석 해외담당 부회장과 강대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현재 태국총동창회 창립행사 일정을 조정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지부의 경우 오승환 회장, 정무웅 감사와 협의를 통해 자카르타와 타 지역을 통합하는 인도네시아총동창회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27개 지방지부동창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서정화 회장은 10년 이상 지방지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문을 발굴해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5 장학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대

지난해까지 총동창회에서 재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연간 2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1학기 11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2학기에는 결연장학금이 지난 학기 10명에서 1백30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장학금 수여액도 늘었다. 한편 1980년 이후 장학금 수혜자는 7천2백64명이며, 장학금은 1백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학금 수혜 졸업생을 시작으로 일반 동문 중 대상을 선별해 '풀뿌리 장학기금' 모금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멘토단을 별도로 구성해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6 역사연구기록관, 문화관 자리로 결정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은 문화관 재건축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역사연구기록관이 들어서게 됐다. 문화관 재건축 비용으로 6백억~8백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재원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확한 착공시기는 알 수 없지만 총동창회는 내년 초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총동창회는 모교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해 1백억원을 지원한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중 50억원은 서정화 회장이 출연하며 50억원은 재단법인 관악회에서 지원한다.

韓基瑞 후파르마 대표 본회 자문위원에 위촉

본회는 지난 7월 14일 한기서(AWASB 2기 회장) 후파르마 대표(사진)를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한 동문은 평소에도 모교 발전과 본회 결연장학사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기서 자문위원을 포함해 우인성(기계공학58-62·인터비즈시스템 회장)·황채호(교육심리61-65·비엠비 상임고문) 부회장, 강신주(사회교육51-55·삼신 대표)·이인호(사학55입·KBS 이사장) 자문위원 등이 결연사업에 동참했다.

한 동문은 결연장학사업뿐 아니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서울 바로크합주단', '서울시 산악연맹'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석사(공업경영,OR)을 마친 후 대학산하 '기업연구소'와 저먼로이드(Germanischer Lloyd)에서 자문(Canvasser)과 프로그램 컨트롤러(Program Controller)로 16년간 종사했다.

그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후파르마(HUH Pharma)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Merz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판토가, 콘투락투벡스 등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Merz사는 미래지향적 다국적 기업으로 최상품질의 유명한 Aesthetic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김남주 기자〉

| 지부탐방·제주지부동창회 |

남다른 향토애로 지역사회 모범

제주지부동창회(회장 이현동·사진)는 본회 지방지부 중 모교와 거리상으로 가장 멀지만 꾸준히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는 곳이다.

명부에 수록된 회원 3백80명

지난 2014년 발간한 동문 수첩에 수록된 회원은 총 3백80명. 제주대 교수로 재직 중인 다수의 동문들을 포함해 교육계 종사자와 의료인, 법조인, 사업가, 농경인, 예술인 동문 등이 활동하고 있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강창일 국회의원도 동창회 회원이다. 해마다 많게는 50~60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지역답게 제주에 뿌리를 둔 동문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제주지부동창회는 1993년 3월 30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병찬(의학53-60) 제주한라대 이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며 첫발을 뗐다. 창립 당시 회원 규모는 3백50명이었다.

1960년대 초 박영훈(경성제대 의학부37졸) 동문의 주도로 모임이 결성된 바 있지만 활동이 미미해 재창립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가던 터였다. 당시 총동창회장이었던 최주호(농학39졸) 명예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각 단과대학 출신 대표들을 만나며 지역 동문의 규합을 독려한 것이 큰 계기가 됐다.

김병찬 초대 회장은 제주도 출신 모교 신입생 환영회와 선후배 간 대화 모임 등을 통해 초기 동창회를 활성화시켰다. 지난 3월 열린 회장단 모임에도 고문으로 참석해 동창회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이후 김영호(약학54-58)·문대탄(법학57-61)·강경선(수의학60-64)·김항원(사회교육65-72)·김부찬(법학74-78)·양길현(정치74-83) 회장이 동창회를 이끌었으며, 현재 이현동(의학77-83) 한마음병원 외과과장이 제8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현동 회장은 타지 출신이지만 제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일정기간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국비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이 회장은 제주도에서 그 의무 기간을 보내다 제주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하게 됐다. 이렇듯 제주가 본향인 동문 못지않게 타지에서 와 공무 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동문들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제주지부동창회다.

매년 5백만원 교육기관 등 지원

특히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별도의 회비를 모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모습은 타의 귀감을 사고 있다. 2013년 총 5백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제주 지역 교육·학술 기관 및 문화·복지 단체 다섯 곳에 기부한 데 이어 2014년에도 제주학회, 녹랑포럼, 랭프봉사단, 제주국악협회, 청수애서원에 1백만원씩을 기부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제주지부동창회가 제주도 내 각 대학 동창회들에게 지역사회 공헌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는 양길현 전임 회장의 뜻이 있었다. 이현동 회장은 "해마다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는 단체 중 재정이 넉넉지 않은 곳을 선정해 도울 것"이라며 연 1회 기부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분기별 1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6월과 12월에는 특별히 강연이나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마련해 동문 모임의 품격을 높인다. 천혜의 제주도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행사도 구상 중에 있다. 참여 문의는 김종현(종교92-00) 총무(lifelover@hanmail.net)에게 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가족-함께하는 시간
Family-Time Spent Together 2014
Acrylic on Canvas 259.1X193.9cm

金悳冀 作

작가 한마디
"한 가족이 평화롭게 시간을 갖는 장면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다."

작가 약력
1993년 모교 동양화과 졸업
1998~2008년 서울 보성고등학교 미술교사
2008~현재 전업 작가활동
개인전 23회 (갤러리현대, 포스코미술관 등)

| 정치외교학과동창회 |

리퍼트 주미대사 초청 송강포럼 개최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7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송강포럼을 개최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선친 송강 구평회(정치47-51) 동문의 뜻에 따라 동창회 활동을 후원하면서 정례조찬모임의 명칭을 송강포럼으로 개명했다.

| 토목공학과동창회 |

'자랑스런 해외건설인의 상' 후보자 공모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정무현)는 광복 70주년 및 한국건설산업 해외 진출 50년을 맞아 '자랑스런 해외건설인 상'을 제정, 후보자를 찾고 있다. 대상은 모교 토목공학과 출신으로서 해외건설 현장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동문이며,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상은 류철호(67-71) 前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기부로 이뤄졌으며, 39회 동기회 주관으로 열리는 10월 25일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 02-880-7358, civil-alum@snu.ac.kr〉

| 기독동문회 |

신임 임원 선임·의대 홈커밍데이 열어

기독동문회(회장 김석준)는 지난 7월 20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김석준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이재동(영교63-67) 부회장, 최현림(의학73-81·경희대 의대 교수) 부회장, 이은선(역사교육75-79·안양대 교수) 신앙이사, 김창대(영문82-86·안양대 교수) 총무이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한편 기독동문회 산하 의대기독동문회(회장 최현림)는 지난 7월 4일 연건캠퍼스 서울대학교병원교회에서 제1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 HPM동창회 |

金椿鎭 국회의원, 상임고문에 위촉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박호영)는 지난 7월 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박호영 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원장, 김춘진(4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7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제10대 임원 위촉식에서는 역대 명예회장에게 추대패를,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사무총장, 자문위원, 사무차장, 이사에게 임명패를 수여했다.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힐링 첼리스트 이웃음 씨의 따듯한 공연으로 자리를 빛냈다.

| AMPFRI동창회 |

대만 타이베이 푸드박람회 다녀와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이재곤)는 지난 6월 24~27일 3박 4일간 이재곤 회장, 최인호 사무총장 등 30여 명의 동문과, 동문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대만 타이베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동문들은 식품, 가공, 케이터링, 포장 등 4개 박람회가 동시에 열리는 'FOOD TAIPEI 2015'를 둘러보며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세계 4대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과 아시아 유명 식당 틴타이펑에서 식사를 즐기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변정수 기자〉

1950~60년대 서울공대 학보를 찾습니다

우림콘크리트공업 대표를 맡고 있는 서립규(토목공학57-61) 동문이 △서울공대 학보 '불암산(佛巖山)' 1~5호, 8호, 12호 △서울공대 신문 '무수탑' 1~7호 △서울공대 학보(1965년 이후 발행) 52~59호, 61호, 71호, 77호, 82호를 찾고 있습니다. 해당 학보를 갖고 계신 동문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273-0931〉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①

“솔선수범하며 참여 독려하겠다”

權五周

ALP동창회 회장
(법사랑위원 서울중앙회 회장)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동창회는 지난 5월 총회에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권오주(14기) 회장을 동창회장에 선출했다. 7월 17일 제헌절 서울 서초구사무실에서 만난 권 회장은 기자가 보내준 질문지에 답안을 미리 준비해 놓았을 만큼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줬다.

권 회장은 “동창회에 기금도 내고 했는데 모임도 거의 없고 활동이 너무 뜸해서 답답한 마음에 임원회의에서 쓴소리를 좀 했더니 동문들한테 추천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제가 맡은 이상 제대로 빛을 낼 수 있도록 완전하게 틀을 닦아놓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연세대 경제대학원 AEP과정 등에서도 동창회장을 맡아 크게 활성화시킨 노하우를 갖고 있다. ALP동창회는 그동안 운영기반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동문명부 제작부터 재정확립, 임원진 개편까지 하나하나 다 재정비가 필요했다. “휴가철이 끝나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기별 회장단과 이사진을 모아 조직개편을 해서 제대로 된 조직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동창회는 우선 등산회와 골프회를 조직해서 동문 간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 예정이다. 중점사업으로는 ‘ALP 서울법대인상’ 제정과 정기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가 기금도 내고 동창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문들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부장급 이상의 법조인들이 1천여 명 포진해있는 우리 동창회 저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들에게 홍보물을 보내고 SNS도 활용하고 동창회보도 제작할 겁니다. ‘한번 나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겠습니다. 투자를 해야 생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권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본회 사무처가 위치한 서울대연구공원에 동창회 사무실 입주가 가능한지 타진하며 바로 박숭걸(14기)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자리가 있으니 입주를 추진하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직접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흔한 말이지만, 우리 동문들의 참여의식에 동창회의 발전이 달려있습니다.”

권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는 약 5백여 명의 법사랑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민간 봉사단체로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吳廷基

SPARC동창회 회장
(현대하이텍 대표)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②

“연예기획사 제휴해 송년회 열 계획”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과정(SPARC)동창회는 지난 3월 총회에서 현대하이텍 오정기(21기) 대표를 새 회장에 선출했다. 지난 7월 28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현대하이텍 사옥에서 오 회장을 만났다. SPARC동창회는 기수별로 올라가면서 1년씩 회장직을 맡고 있다.

오 회장은 취임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희 기수 차례가 와서 여차저차 맡게 돼 특별히 취임 소감이랄 것은 없지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동창회는 상·하반기 각각 1번씩 크게 치러지는 골프대회와 등산대회, 연말 송년회를 주요 연례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다른 과정 동창회들과는 조금 다르게 각종 소모임들과 기수별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주요 행사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기수별 모임을 갖고 있으며 동창회 발전을 위한 전체 임원회의 역시 동창회 사무처와 함께 월 1회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문 간에 자주 교류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동창회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모두들 어려운 시기에 동창회 운영을 더 확장해 나가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행사라는 것이 과정 수료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골프·등산대회만 봐도 항상 오는 한정된 동문들만 오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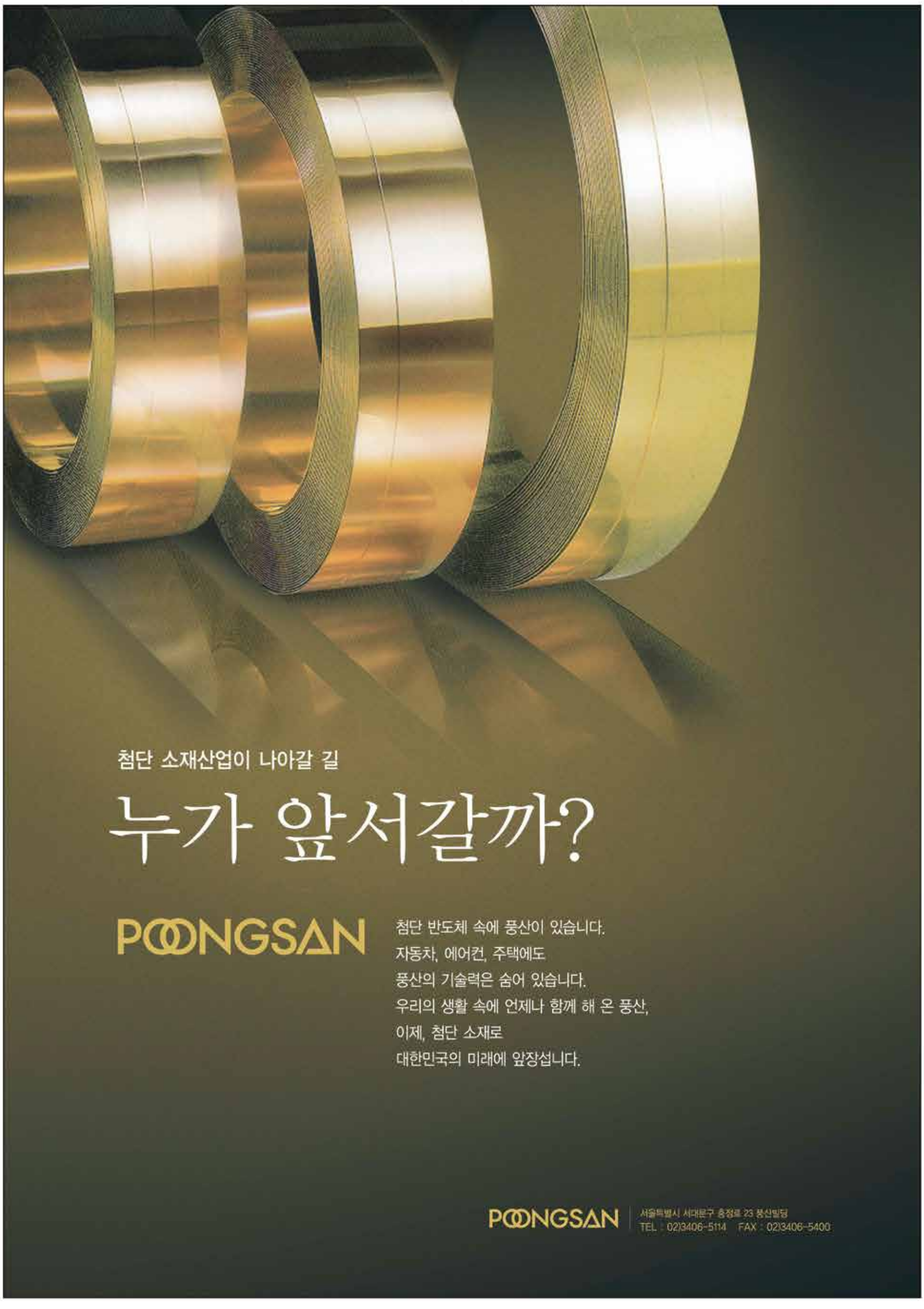
“그런 행사에서 벗어나 되도록이면 모든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색다른 이벤트로 접근한다면 동문들의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회장은 그 일환으로 올해 연말 송년회를 연예 기획사와 제휴를 맺어 제대로 열어보려고 일찌감치 공들여 준비하고 있다.

SPARC동창회에는 연예계 종사자부터 공무원, 군인, 의료인, 건설업 종사자, 법조인, 발레 무용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문들이 존재한다.

“자주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문들을 한데 모이게 하기 위한 참여의 장을 만들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회장은 단국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현대하이텍은 1998년 현대전자에서 독립하면서 세운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최근엔 틈새시장을 공략한 광고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해 미국, 일본 시장에도 진출한 연 매출 2백50억의 알찬 중소기업이다. 현재 1백여 명의 직원이 ‘특화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사훈 아래 함께 땀 흘리고 있다. 〈변정수 기자〉


첨단 소재산업이 나아갈 길
누가 앞서갈까?
POONGSAN
첨단 반도체 속에 풍산이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컨, 주택에도
풍산의 기술력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해 온 풍산,
이제, 첨단 소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앞장섭니다.
POONGSA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신빌딩
TEL : 02)3406-5114 FAX : 02)3406-5400

행복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네트워크,
BGF가 맞추어가다

유통과 물류, 옴니채널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일상의 편리함을 삶의 행복으로 연결해주는
라이프 네트워크 기업, BGF
대한민국의 생활을 하나로 이어갑니다

BGF리테일 BGF캐시넷 BGF푸드 BGF로지스 BGF휴먼넷 BGF디에스넷

“부친께서 택한 길은 문화를 통한 독립운동”

全晟雨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간송 전형필 선생의 아들인 전성우(조소53입)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난 7월 27일 성북동 자택에서 만났다. 김중업 건축연구소에서 지은 단층집은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졌다. 화가로 명성이 높은 전 동문은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구부린 자세로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온 탓이다. 거동은 불편했지만 목소리는 맑고 친절했다. 사전에 보낸 질문지 내용을 숙지해 질문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추임새 정도면 족했다. 2시간에 걸쳐 모교 입학시절부터 최근 간송미술관 소장품을 외부에 전시하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대 교수시절을 떠올릴 때는 먼저 떠나간 제자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작품 활동이 어려우시겠어요.

“오랫동안 이젤을 사용 안 하고 큰 작품을 바닥에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간 것 같아요. 요즘은 간간히 소품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화를 줄곧 해오셨는데, 조소과 입학을 하셨어요.

“부산 송도 가교사 시절 입학을 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하던 시절이죠. 그림을 그릴 물감, 종이가 귀했어요. 어린 마음에 흙은 많지 않겠나 싶어 조소과에 입학했죠. 작품에 필요한 점토와 흙은 다른 건데…. 입학시험 문제가 ‘사과 다섯 개를 그려라’ 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창의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실물도 없이 상상으로 그려야 했으니까.”

졸업을 못 하셨는데.

“1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울산 위에 병영이란 곳에서 부산까지 통학을 할 때라 송도에 도착하면 수업이 끝난 날이 많았어요. 공부할 환경이 못됐죠.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유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아마 유학시험 보고 떠난 1호 학생일 겁니다. 당시 시험문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 부분을 요약하는 거였습니다. 썩 잘 본 것 같진 않은데 합격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비행기표를 구해주셔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은 어땠나요.

“도착하자마자 우선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송금도 안 되고 전쟁 중이라 한국에서 외환을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그 곳에서 좀 떨어진 과일농장에서 두 달간 일해서 생활비와 1년 학비를 벌었습니다. 숙식은 좋은 분을 만나 하우스보이(일종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해결했어요. 당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가 요리사, 바텐더라서 두 직업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아버님 소개로 미국적십자사 한국지사에서 근무했던 분을 만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추상화를 보고, 이런 그림도 있구나 싶었죠. 일하는 시간을 제하곤 모든 시간을 그림 공부에 쏟았습니다. 학교에 저를 눈여겨보시던 중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꿈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여기 말고 미술전문학교를 가라’면서 소개장을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로 편입해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2학년 말에 편입해 가자마자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한 미술대회에서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입선을 해서 인정을 받기도 했지요.

제가 미국에 체류하던 1953년부터 1965년까지가 미국 미술의 르네상스 시기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그림을 배웠으니 운이 좋았죠. 제 그림을 3백점 정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지 3개월 후에. 아버님이 ‘한창 그림에 몰두해 있는데, 알리지 말라’고 하셨대요. 돌아오면 다시 나가기 힘들다고. 돌아가실 연세가 아닌데, 일찍 떠나셔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 동문은 차이니즈 칼라 스타일을 즐겨 입어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서구 추상기법으로 동양정신 구현한 화가로 평가
휘트니미술관 ‘젊은 미국 미술 1960전’ 초대받아

동양미술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당시 관련 서적이 중국이나 일본책이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 다시 제본해 보내주셨죠. 소식을 듣고도 잡혀있는 전시회와 강의 계약들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하고 1965년 귀국했습니다.”

귀국해 이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여학생들을 피해 서울대로 왔더니 여기에도 여학생이 많았어요. 남학생들은 고작 3명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에게 저녁 8시까지 그림을 그리면 술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지켜봤죠. 막걸리에 김치만 먹어도 좋을 때라 빈대떡, 파전까지 사주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많이 따라왔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관심 가진 게 국악과 오래된 사찰이었어요. 우리 것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죠. 시간 있을 때마다 학생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그 때 저를 잘 따르던 학생 중에 김홍배, 정기용, 성완경, 박충흠, 이상국, 최병민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몇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보화각이 있는 이 곳은 어땠나요.

“1965년 미국에서 돌아왔을 당시 거의 폐허수준이었습니다. 6·25전쟁 때 이곳에 북한군 기마대가 머물렀습니다. 1·4후퇴 때는 중공군 의무대가 들어왔고요. 터키군이 여기 건물을 사용하기도 했죠. 어떻게 됐을지 미국에 있을 때도 무척 걱정이 되어서 오자마자 들렀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손대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여담인데, 6·25전

유학길에 찍은 기념사진. 좌로부터 첫 번째 간송 전형필, 세 번째 전성우 동문. 이날 본 아버지가 전 동문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이다.

전성우 이사장은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의 본고장 미국에서 12년간 유학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전 동문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만다라 시리즈를 선보이며 서구의 추상표현기법으로 동양정신을 구현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볼즈화랑(Bolles Gallery)과 전속 계약도 맺었고 순수 평화의 세계를 지향하는 ‘색동 만다라’라는 고유한 정신적 주제를 완성했다. 그는 미국 휘트니미술관이 기획한 ‘젊은 미국 미술 1960전’에 당당히 선발됐는데 동양인으로는 백남준 보다도 앞선 ‘최초’였다.

김광균 시인의 딸이자 매듭장(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아내 김은영 씨와 사이에 2남 2녀를 뒀다. 장녀 인지 씨는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인아(서양화89-93) 씨는 서양화가로 활동 중이다. 장남 인건 씨는 간송미술문화재단 사무국장과 보성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으며, 차남 인석 씨는 경영 컨설턴트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동생 전영우(회화59-63·고고인류63-66) 간송미술관장도 동문이다.

전쟁 당시 북한군이 물건들을 가져가 려고 나무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작업에 국립박물관의 최순우 선생님과 당시 유명한 서예가였던 소전 손재형 씨가 동원됐어요. 그 분들이 열심히 만들 리 없죠. 시간을 지연하다가 인천상륙이 시작되니까 북한군들이 다 놓고 도망쳤습니다. 1·4후퇴 때 그 나무상자에 물건을 싣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열차 한 량 밖에 빌릴 수 없어 중요한 것만 챙겨 갔죠. 보화각 외 보성중학교 도서관 등 여러 곳에 한적, 문고류, 전집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시에 전국 여기저기로 흩어진 물건들이 많지요. 아버님은 잃어버린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사셨어요."

수집한 물건에 대한 기록이 없었나요.

"아버님이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가족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아버님이 수집한 예술품에 대한 것은 대부분 최순우 선생님이나 외부 사람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고려청자 등을 구입한 존 개스비와의 일화가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기록입니다."

폐허가 된 보화각을 다시 정리하면서부터 '창고지기'의 삶이 시작된 거군요.

"최완수 소장과 지금 간송미술관장으로 있는 동생 영우가 많은 일을 해줬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와 간송미술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외부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간송미술관은 낡고 규모가 작아 큰 전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제안이 와서 고심 끝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전시회를 갖기로 했죠. 아버님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계셔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재단 설립도 이런 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향후 상설전시관 건립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후원회도 조직해야 하고요. 이런 일들은 제 자식들이 맡아 하게 될 겁니다. 다행히 자식들 모두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아버지 전형필은 어떤 분이셨는지.

"항상 겸손한 선비셨고 우리와 즐겁게 잘 놀아주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1943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물감 세트를 사주셨는데, 하도 귀한 물건이어서 화가인 아버지 친구가 빌려갔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사랑방 약주 심부름하면서 어른들께 귀동냥하며 배운 게 저를 화가로 이끈 산교육이었죠. 저 세상 가서 아버지 뵀을 때 '그동안 지키느라 고생했다' 그 말 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아버지 간송께서 택한 길이 바로 '문화를 통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심리적 폐허를 극복하고자 서구 각국이 힘을 기울였는데 예술을 통한 치유와 복원이 주요 방법론으로 대두됐죠. 프랑스에서는 명문가 로쉴드의 자제들이 예술품 수장으로 문화적 국권이 회복되길 바랐고 미국의 폐기 구겐하임, 필립 존슨은 시대적 책무를 예술품에서 찾았습니다. 간송이 하신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짓눌린 자존심과 강요된 열등감을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통해 극복하길 바라셨습니다.

첨단의 시대일수록 정신성과 문화가 중요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 우리의 뿌리는 조상의 얼이고 혼입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옛것도 알아야 하고 교육도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둬야죠.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멀리 뻗고 잘 자랍니다. 누군가는 첨단을 개척할 때 누군가 뿌리를 지키는 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김남주 기자〉

"간송미술문화재단 후원회 결성 추진"

간송미술관이 지난해부터 동대문 DDP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DDP와 2017년까지 대여계약을 했다. 전성우 이사장은 "내가 지키는 세대였다면 다음세대는 소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현재 재단은 장남 전인건 씨가 사무국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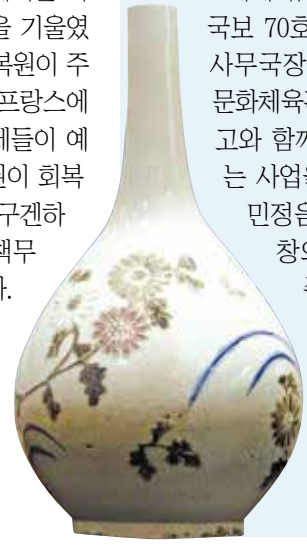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현재 펼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우리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대중에게 전시를 통해 전파하며 △간송의 삶과 정신을 알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대문 DDP 전시, 훈민정음 해례본 대중 보급, 서울 방학동 간송묘소에 간송공원 조성사업, 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세계 유일의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돼 있다. 전인건 사무국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교보문고와 함께 복간해 일반에 보급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민족의 창의성과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귀중한 책이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해설 등을 담아 국내 학교와 해외 교포 등에 보급해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방학동 간송공원은 현재 간송 묘소 옆에 위치한 간송이 사용하던 한옥(등록문화재 제521호)을 복원해 이뤄지는 일로, 현재 복원 공사는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황이다. 현 성북동 간송미술관(보화각)이 낡고 규모가 작아 성북동 간송미술관 인근에 상설 전시관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니라서 후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의 힘만으로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가기엔 한계가 있다.

전 사무국장은 "외국의 유명 미술관 박물관 등은 강력한 후원회가 존재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며 "우리 문화의 보고인 간송미술관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제135호 '혜원전신첩' 등 국보 12점,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 등 보물 10점을 비롯해 김정희, 정선, 신윤복, 김홍도, 장승업 등 회화와 서예 작품, 자기, 불상, 서적 등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사진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위)과 국보 제294호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

화제의 동문 ①

매일 첫 손님 돈 모아 매년 3백만원씩 기부

"모교 출신은 나라에 빚진 사람… 갚는 게 당연"

金康造 하나약국 대표

충남 대전에서 하나약국을 운영하는 김강조(약학64-68) 동문은 매일 첫 손님에게 받은 돈을 저금한다. 1만원이 안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다. 하루 평균 만원. 그렇게 1년 동안 모으면 약 3백만원이 된다.

이 돈을 대전·충남지부동창회에 기부해 매년 모교에 입학하는 지역 출신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1년 시작했으니 햇수로 10년이 넘는다. 하루 1만원이 쌓이고 쌓여 4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기부한 셈이다. 하루 1만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을 실천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7월 19일 동문바둑대회에서 만난 김 동문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한 것에 대한 작은 기여"라며 "서울대 출신을 비롯해 국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동문이라면 하루에 1만원 저금하는 일이 큰 부담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주변에 그 이상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는 강은모(외교78-82) 동문 같은 분도 계시죠.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작지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하루 1만원 저금, 많은 동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동문은 2010년 동문바둑대회 D조(5급)에서 우승을 하고, 매년 급을 올려 출전하는 바둑애호가다. "올해는 상대방에게 기쁨조가 되고자 A조(1급)에 출전했다"고 말한 그는 실제 이날 기쁨조(?) 역할을 충실히 하며 1승 4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바둑대회도 결국 친교를 위해 하는 활동이라 생각해요. 바둑 두기 전 상대방과 꼭 통성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동문 간 활동이 경쟁해서 상품을 타려는 게 아니라 서로 알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 부합해야죠."

1945년 광복둥이이기도 한 그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지만 집한 채 마련하기 힘듭니다.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갈등이 더 심하고요.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하고요. 통일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쟁과 산업화라는 험난한 시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가 겪은 야성을 되살려 개척정신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동문은 모교 졸업 후 1967년 동아제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금산인삼제품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겨 인삼수출에 전력을 다해 생산부장 시절엔 1백28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려 삼성에서 달러를 사 가기도 했단다. 당시 1백28만 달러는 그해 국내 전체 수출업체 중 105위에 해당되는 꽤 큰 규모의 수출액이다. 그는 1981년 사장에 오른 후 1985년 퇴사해 동림약국(현 하나약국)을 개업했다. 대전·충남 한일친선교류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남주 기자〉

통렬한 '반성 백서' 펴낸 李建雨 공과대학 학장

이건우(기계공학74-78) 서울대 공대 학장이 최근 펴낸 '201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백서'에서 서울대 공대는 야구에서 번트를 친 후 '간신히' 1루에 진출하는 타자에 스스로를 빗대면서 탁월한 연구 성과(만루홈런)가 없다고 통렬하게 자기반성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교수들이 '랭킹'이란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 교수들이 적당히 쉬운 주제로 논문을 낸다. '교수들만의', '교수들을 위한' 연구를 한다. '얼치기 연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공대는 더이상 '탁월한(excellent) 대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이 학장은 "지금까지는 졸업생을 많이 보내 대기업을 성장시켰으니 잘 했지만 언제까지 대기업에 기댈 수 없다"며 "중국이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이제는 퍼스트 무버(시장 선도자)형 인재를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화제의 동문 ②

아모레 최연소 여성임원서 결혼정보사 대표로

"서울대 동문에게 10% 할인 혜택 드립니다"

박수경(가정관리84-88) 동문은 '결혼 권하는 CEO'다. 아모레퍼시픽 최연소 여성 임원이었던 박 동문은 지난해 5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표로 취임했다. 듀오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결혼정보업체들 중 부동의 1위를 지켜온 곳. 그간 듀오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은 3만여 건을 훌쩍 넘는다. '결혼하기 힘든 시대'라는 요즘도 한 달 평균 1백50건을 꾸준히 성혼시킨다.

지난 7월 22일 강남 듀오 본사에서 만난 박 동문은 "결혼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결혼정보회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결혼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경제난 등으로 인해 만혼이 보편화되고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많아졌죠.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해오다 보니 그런 변화도 한눈에 보여요. 듀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결혼상대자를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싶어요."

듀오는 자체 개발한 컴퓨터 매칭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인 매칭과 노련한 커플매니저의 직관에 의한 매칭을 병행해 인연을 찾아주고 있다. 커플매니저는 만남을 계획하는 일부터 데이트 코스와 의상까지 코칭해주기도 한다. 박 동문은 "'살면서 세 쌍만 결혼시켜줘도 천당 간다'고 하는데, 이곳 커플매니저 분들은 모두 수십 쌍에서 백 쌍 이상은 성혼시킨 분들이니 천당에 와 있는 셈"이라며 웃음지었다.

서울대 동문(직계 자녀 포함)에게는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랫동안 서울대 동문이 대표를 맡아왔기에 인연도 깊다. 이외에 할인 혜택이나 공짜 가입을 남발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이나 연애에 실패한 사람만 찾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회원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쁘고 원하는 상대를 찾을 여력이 없기에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약속도 잡아주는 매니지먼트 일체를 저희에게 맡기는 거죠. 동문들 중에 한창 때 공부와 일에 매진하다가 만혼의 나이가 된 남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이 제일 빠를 때'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결혼정보회사에는 여성 회원이 더 많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박 동문은 "최근 2, 3년간 놀라울 정도로 남성 가입자가 늘었다"고 했다. 현재 듀오 회원 2만7천명 중 남성이 52% 정도로 성비가 고르다. 예전처럼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기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찾아온다는 점도 큰 변화다.

박 동문의 남편인 김종성(공법83-87)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와의 연애담이 재밌다. 가정관리학과와 행정대학원 과대표로 단체 과 미팅을 주선하다 사랑에 빠진 것. 김 동문은 재학 시절 도서관 '자리 맡기' 관습을 앞장서 규탄한 덕에 '서울대 람보'로도 유명했단다. 적극적인 성격의 부부는 주변에 소개로 성사시킨 커플도 여럿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다.

향후 듀오는 인생종합컨설팅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제공하는 초혼·재혼 서비스를 통한 가정의 탄생에서 출발해 결혼생활의 유지와 노년의 삶에

朴水京 듀오 대표

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까지 자연스럽게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옮겨올 때 서경배 회장님이 '잘 어울린다. 대한민국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겐 굉장히 좋은 미션이지요.

시대에 따라 결혼의 형태와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그때도 '혼자가 아닌 듀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독서실 시장에 새바람 이동준·신현욱 동문

시간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한 프리미엄 독서실 그린램프라이브러리 브랜드를 운영하며 독서실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는 아토스터디의 이동준(지구환경시스템공학08졸 **사진 왼쪽**)·신현욱(외교07-14) 대표. 이 둘은 모교 부동산 동아리 SRC의 선후배 사이다.

이 대표는 2006년 대우증권 대체투자부에 입사하며 공간 개발과 투자에 대한 능력을 키웠다. 신 대표는 패스트트랙아시아가 투자한 맞춤 셔츠 브랜드 스트라입스를 론칭해 초기 1만5천여 명의 소비자를 모으는 등 벤처 업계에서 입지를 다졌다.

그린램프라이브러리의 학습 공간과 시간 관리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3개가 모두 만석이 되어 대기자를 받고 있다. 7월 4일 대치동에 신규 오픈한 4번째 직영점도 오픈 전, 모든 좌석이 마감됐으며 신규 투자 문의가 이어져 추가 직영점 오픈도 앞두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CLUB

저마다의 그리움과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의 공간,
서울대학교의 지성을 대변하던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이 소중한 옛 이야기와
추억을 간직한 채 또 다른 미래를 향해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격조 있는 서비스와 새로운 모습으로 格이 다른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Seminar Zone

최신시설을 갖춘 **9개의 회의실**은
조찬, 오찬, 만찬 테이블 서비스는 물론,
다과와 음료 및 주류 제공이 가능합니다.

* 회의 시 필요 설비 무료 제공

Convention Hall : Wedding

웨딩 및 연회 진행 시에 고급스러운
호텔식 테이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사 가격에 음료 및 주류 포함

Korean Restaurant(1F)

1층 레스토랑에서는 8도 진미를 담은
한식과 **도시락 케이터링** 서비스 및
야외바비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 조찬, 오찬, 만찬 이용 가능

Western Restaurant(2F)

2층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양식 요리와
엄선한 **와인**을 제공하며,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 조찬, 오찬, 만찬 이용 가능

문의 및 예약 | 02-880-5241, 02-871-3292
http://facultyclub.snu.ac.kr

World best
KET의 첨단기술로 만듭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력으로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에서
최첨단 IT 분야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무한 경쟁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부문 ▶차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 기술
■전자 부문 ▶디지털 전자용 고정밀 · 고집적 커넥터 기술

■자동차 부문 ■전자 부문

BUD/PRA

Battery Fuse Terminal

Charge Coupler

Impact Sensor

Display

Mobile

A.V.N

LED Lighting

KET ENGINEERED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KOREA ELECTRIC TERMINAL CO.,LTD.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8 http://www.ket.com TEL_032-814-9981 FAX_032-814-8860 E-mail:webmaster@ket.com

간호대학 후학 양성 위해 통 큰 기부

故 崔愛玉동문 유족 1억원 출연

1960년대 서울대 교수로 재직 당시 최애옥 동문.

미주동창회 故 최애옥(간호47-50) 동문이 지난 7월 1일 간호대학에 '최애옥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2014년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별세한 최 동문은 2008년 병환 중에도 불구하고 간호대동창회에 1억원을 출연했으며 이후 평소 근검절약해 모은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5월 최 동문의 유산을 기부하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었다.

이날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성낙인 총장은 "높은 경륜과 학덕을 통해 후학의 귀감이 되신 최애옥 동문님과 가족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금은 간호대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선한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소중히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대학동창회 제3대·제7대 회장을 역임한 최 동문은 모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1967년 도미해 시카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최 동문의 유족은 "할머님은 먼 미국에서도 항상 모교인 서울대에 애정이 많으셨고 늘 그리워하셨다"며 "본인의 이름이 서울대에 새겨진 것을 보시면 그 곳에서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간호대학은 지난 6월 29일 김성재 간호대학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 동문의 뜻을 기려 간호대 본관 로비 벽면에 부조를 설치하고 교정에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李倫京 동문 부부 1억원 쾌척

지난 7월 23일 CM충무병원 이윤경(간호65-69) 대표가 모교 간호대학에 '이윤경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개최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성낙인 총장, 이윤경 동문과 남편인 이도영(의학63-69) CM충무병원 이사장, 간호대학 김성재 학장을 비롯해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동문은 서울대 간호대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7년 간호대 동창회장을 역임하며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장학기금 외에도 건축기금과 간호대 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기부하며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다.

성낙인 총장은 "이윤경, 이도영 동문님 가족은 CM충무병원을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종합병원으로 육성하며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한 분들"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며 후배들의 인재 양성에 귀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낙인 총장, 이윤경·이도영 동문 부부

선한 인재를 향한 선한 동문을 만나다

韓玉姬(화학79-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DRC 센터장

'선한 인재 장학금' 이 마련되기 전 2008년부터 매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한옥희(화학79-83) 동문을 만났다. 한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캠퍼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일대 연구원을 거쳐 2002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들어가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DRC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세계 최초로 나피온 전해질막 이온의 이동특성을 규명하는 등 기초과학분야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후원 동기, 특히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평소 후배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고민을 하다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것으 알게 됐습니다. 자기공부와 진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죠."

동문님이 생각하는 기부란.

"개인적으로 사람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또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기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한다면 그 학생들도 훗날 기부든 아니면 본인의 꿈을 추구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처음 수여식에 왔을 때는 연배가 많으신 분들만 보여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지' 했는데, 막상 학생들을 만나 대화해보니 내 자신이 더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군요. 결과적으로 장학금 기부를 통해 내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마지막으로 선한 인재가 될 후배들에게 격려 한 말씀.

"제가 그간 경험한 바로는 사람이 너무 풍족하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언제나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대발전기금〉

서울대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 수상

지난 6월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회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대(총장 성낙인)가 교육부장관상인 대상(대학기금 부문)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은 △대학 △보험 △공제회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한다. 이번 대학부문 심사는 전국 1백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위원회 의사결정체계와 자산배분 현황, 기금정보 제공노력 등 3개 부문 13개 항목을 평가했다.

서울대는 기금운용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가 우수하고 자산배분을 통해 기금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성 총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기금이 튼튼해야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늘리고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다"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향후 저금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

모교 단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선정

서울대 국민대 건국대 등 전국 60개 대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2015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60개 대학을 선정해 지난 7월 2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전형 개선 효과를 끌어내는 대학을 뽑아 5백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은 서울대는 총 25억원을 받는다.

CWUR 세계대학 순위서 24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대학랭킹센터(CWUR)의 2015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서울대가 세계 24위를 차지했다. 연세대(98위)는 작년보다 순위가 9계단 올라 100위권에 진입했고, 고려대(115위), KAIST(144위), 포항공대(포스텍, 165위), 한양대(192위), 성균관대(211위), 경북대(307위), 광주과학기술원(GIST, 301위), 전남대(384위), 이화여대(390위) 등이 400위 안에 들었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13위인 일본 도쿄대와 17위인 교토대에 이어 서울대가 세 번째였다.

자연대 '무감독 시험' 도입해

자연과학대학은 시험감독 없이 학생들이 양심껏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아너 코드(Honor Code)'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아너 코드는 학생들을 감시하는 감독자를 두지 않는 대신 시험이나 과제 등에서 학생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서약을 남기고 어길 시에는 징계를 감수토록 하는 일종의 '명예규정'이다. 미국의 프린스턴대, 스탠퍼드대 등이 운영하고 있다. 자연대는 강의의 성격과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해 무감독 시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2학기 중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일부 수업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열어

미술관은 8월 12일~9월 20일 제1갤러리에서 '흔적에서 작품으로 : 서울대 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산금, 구본창, 김창열, 김환기, 송영방, 신미경, 윤명로, 윤형근, 정주영, 최만린, 황인기, 홍수연, 홍승혜 작가 등의 회화, 조각, 사진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봉사활동·인턴십·해외대학 교류로 풍성한 여름

요즘 재학생들의 방학은 휴식기간이 아닙니다. 계절학기에 참여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학기 중 미뤄놨던 개인 공부를 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농활 같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서울대와 교류를 맺고 있는 해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평소 관심 있었던 기업, 기관에 인턴십으로 참여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합니다. 네 명의 학생기자가 다채로운 여름방학 활동을 전합니다.

'방학인듯 방학아닌 방학같은' 하계 활동 보고서

서울대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사회공헌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있다.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지난 2012년 서울대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창설됐다. 이후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왔고, 지난달 3일에는 이 봉사단들이 'SNU 학생공헌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출범했다.

(위)수의과대학 임상봉사 동아리 'PALLAS'의 봉사활동 (아래) SNU 학생공헌단 학생들이 경로원에서 미용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취약계층 아이들 교육·의료봉사

'SNU 학생공헌단'에 포함된 16개 봉사단은 6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외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교육봉사. '찾아가는 멘토링'은 철원에서, '사회봉사3'은 베트남 남딘에서 지역 청소년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학습,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학생 멘토들이 직접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NU 선한인재 리더십 키움 프로그램'은 인천지역 취약계층 초·중학생에게 리더십 교육과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경영대학이 주관하는 'GCS(Global Community Service)'는 중국 시안에서 도서사업, 문화사업, 벤처사업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테마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해 봉사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현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서울대, 태안을 부탁해'와 '서울대, 정선을 부탁해'는 이와 유사한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컨설팅 사업을 국내에서 시행했다.

의료, 보건계열 학생들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봉사에 나섰다. 수의과대학 임상봉사 동아리 'PALLAS'는 교수, 졸업생, 학부생이 함께 스리랑카에서 백신접종, 중성화 수술, 농장방문과 수의진료를 했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CASA'는 필리핀 세부에서, 치의학대학원의 'DeCA'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찾아가는 멘토링'에 참여한 기계항공공학부 조경수 학생은 "고등학교 때 원하는 학과가 아닌 서울대학교만을 생각해 재수 끝에 입학하고 보니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을 했고, 결국 전과를 했다"며 "남들보다 진로 선택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PALLAS' 회장을 맡은 수의학과 박윤지 학생은 "현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선배님들의 수술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서 전공 관련 인턴십

갈수록 좁아지는 채용문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대학생들의 방학생활은 정규학기 때만큼이나 취업 계획표로 빼곡히 짜여 있다.

하계 방학 동안에 국내 대기업에서 전공을 살려 직무를 배우고 있는 이광형(통계09입) 학생은 두 달간 삼성증권에서 RM(고객을 관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직책, relationship manager)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대 사회공헌의 싱크탱크 돼야"

趙允旋 前청와대 정무수석

"여러 번 생각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기보다, 한 번만 생각하고 주저 없이 실천하세요."

지난 7월 3일 관악캠퍼스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과 서울대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회공헌 특강을 끝맺으며 조윤선(외교84-8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자세로 후배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SNU 학생공헌단' 발대식 2부 순서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조 동문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사회공헌과 관련된 느끼고 깨달은 바를 후배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 동문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서울대인들의 사회공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강의의 시작을 열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하는 동안 "국가의 복지정책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예산이 많아도 늘 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조 동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회공헌에는 충분한 '공부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전문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동문은 이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조 동문은 "내가 서울대를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학생 간 빈부격차가 별로 나지 않았다"며 "불과 30년 만에 생계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나아갈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사다리가 돼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땅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밟지 않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격언을 소개하며 조 동문은 자신은 이것을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비록 내가 밟지 않은 땅이라도 내가 존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즉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사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밟지 않은 땅처럼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를 할 때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 생각을 밝혔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 조 동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모교 법대 선배가 "사법고시는 누구나 노력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지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변에 붙은 사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어주는 것 자체로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동문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인턴생활을 하던 당시 폴 미셸 판사가 자신을 포함한 젊은 법조인들에게 했던 다섯 가지 조언을 후배들에게 전했다.

첫 번째는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는 늘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항상 주변에 멘토를 찾으라는 것, 세 번째는 모든 해야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 네 번째는 자기 수입보다 검소하게 생활하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내가 나와 가족 이외에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라는 것이다. 조 동문은 다섯 번째 조언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강을 맺었다.

〈이지은 학생기자〉

(왼쪽)모교 재학생들이 SNU 선한인재 리더십 키움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지역 취약계층 초·중학생에게 선한인재 리더십 교육을 펼쳤다. (오른쪽) 서울대를 찾은 인천지역 초·중학생들

그가 주로 하는 역할은 고객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안하는 것. 인턴을 하는 목적에 대해 그는 "전공분야를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고, 채용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토요일도 근무하는 주 6일 근무지만 대기업 인턴사원으로 지원받는 높은 월급과 근무환경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학생도 있다. 올해 초 정부해외인턴사업 전시산업 인턴으로 선발된 이 란(불어교육11입) 학생은 5월부터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턴 신분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배포할 홍보책자 관리와 프랑스 기사 번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도 전공을 살려 인턴에 선발된 경우에 속한다. 본인만의 뚜렷한 구직 철학이 있는 그녀는 "진로에 대해 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로 떠나는 'SNU in World'

서울대의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중 해외 파견 프로그램들은 단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다. 학교 측의 지원 하에 다른 활동과 해외 방문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 올해는 새롭게 확대된 SNU in World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특히 뜨겁다.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것은 우선 학교 측의 많은 지원 덕분이다. 프로그램은 모두 엄선된 양질의 수업, 강의로 이뤄져 있다.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업료와 프로그램 참가비를 내고 항공료 일부, 체재비, 여행자 보험, 현지에서의 어학코스 수강료 등을 국제협력본부에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의 동행하에 파견국의 모습을 보다 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매력이다. 올해는 기존에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베이징, 워싱턴, 도쿄, 모스코바에 이어 마드리드, 파리, 베를린의 유럽 3개 도시가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SNU in Europe'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4: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SNU in World 프로그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기존의 SNU in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총 2백85명의 학생들은 방학 동안 외국어 공부에 매진해야 했다.

베를린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은 백연미(언어학12입) 학생은 "학기 중에는 전공 수업 등으로 인해 언어 학습에 시간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방학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참가하게 됐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이전에 중국어를 공부한 뒤 SNU in Beijing에 참가한 김준형(영문14입) 학생은 본 프로그램이 단순히 외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김준형 군은 약 두 달간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중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것은 단순히 어학 실력뿐이 아니라면서 "거리에서, 유적지에서, 현지 회사에서 만난 모습들을 통해 중국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SNU in Madrid의 경우, 투우 경기 관람, 근교 도시 견학, 미술관 관람 등이 체험 프로그램에 포함돼 인기를 끌었다. 김지영(서문11입) 양은 "서어서문학과 학생이지만 이전까지는 한 번도 스페인에 와본 적이 없어 졸업 전에 스페인을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어학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투우,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과 같은 스페인의 상징 안에 직접 들어와 있는 기분은 색달랐다"고 말했다.

〈김성구·박성연·김예원 학생기자〉

SNU in worl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수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독일·영국 민관협력 파트너십 선진기관 탐방기

"해외 전문가 만나 관심 분야 지식 쌓아"

6월 22일 렌트한 자동차로 신나게 아우토반을 달려 도착한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 칼브. 헤르만 헤세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얼핏 보기엔 정겨운 시골마을이지만,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입지해 있었다. 우리의 첫 인터뷰 기관인 보어린드(BORLIND) 사의 로고가 보이자 설렘과 동시에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리지널 푸드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퀼른대성당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

농생명대학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단에서 주관한 RICA FRONTIER 프로그램에 선발돼 방학동안 독일과 영국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선진 기관들을 탐방할 기회가 생겼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자유롭게 탐방국가와 기관을 직접 선정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서면 및 발표심사를 통해 제안을 선정해 해외 현장학습을 지원한다. 인당 총 3백5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며, 우리 팀은 총 5명으로, ODA 사업에서의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을 주제로 지난 학기 많은 준비를 해왔다.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는 한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원조방식으로, 세계적으로도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 PPP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뽑히는 쉐아 버터 프롬 말리(Shea butter from Mali) 프로젝트를 총괄한 보어린드 사의 Guylaine 씨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며 현지 담당자와의 구두계약만 믿었다가 몇 번이나 낭패를 보았던 프로젝트 초반부를 회상했다. 이후 현지 사정에 정통한 '민간 컨설턴트'를 고용해 공식적 업무는 물론, 지역행사 참여 등 비공식적인 일정까지 도움을 받으며 현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갔다고 했다.

런던에서 방문한 트리플라인 컨설팅 사는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외주 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공동설립자인 David 씨는 평가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양질의 평가지표를 개발해 프로젝트가 이끌어낸 변화를 효과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원조기관과 연구소 등 총 5곳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논문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팀은 몇 개월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각자가 생각하는 논리를 서로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을 수없이 거쳤다. 이렇게 정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다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양진수 학생기자〉

선한 인재들을 후원해주세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인재 장학금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인당 매월 생활비 30만 원 지원

* 가계소득 1분위 : 월 소득인정액 108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이만큼 필요합니다

매년 27억 원(학기당 750명)

360만 원이 모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1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 원이 모이면 기금 운용수익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참여

동봉된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 팩스 ·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ARS 후원

060-700-8004 한 통화에 5,000원이 기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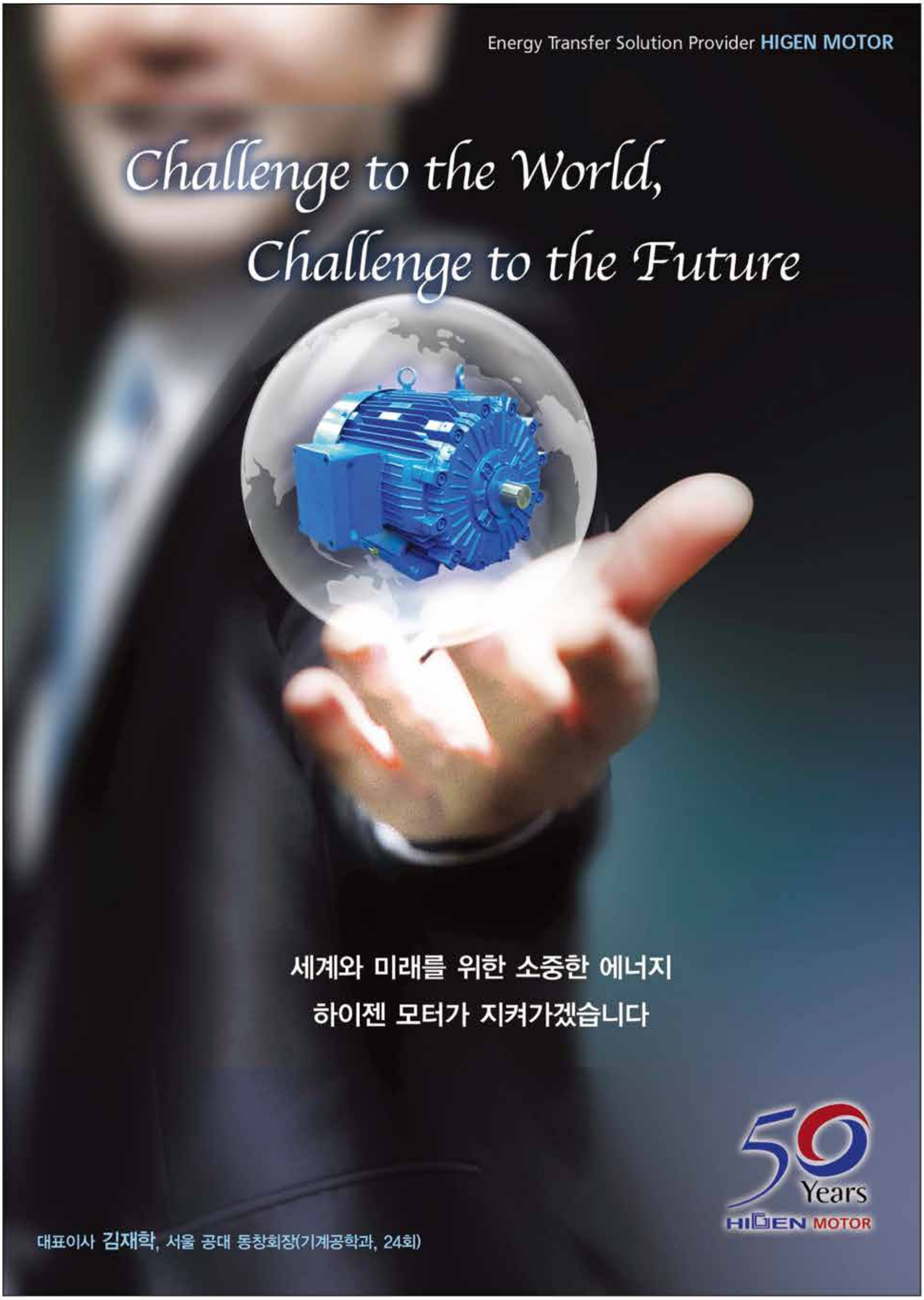
전화 참여

02-880-8004, 02-871-8146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전화 02-880-8004 팩스 02-872-4149 이메일 snuf@snu.ac.kr 홈페이지 www.snu.or.kr


Energy Transfer Solution Provider HIGEN MOTOR
Challenge to the World,
Challenge to the Future
세계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에너지
하이젠 모터가 지켜가겠습니다
50 Years
HIGEN MOTOR
대표이사 김재학, 서울 공대 동창회장(기계공학과, 24회)

CONTE RELAY

돈의 사내

金鎭洙
(농공62입) 월간 회원광장 주간

金 동문은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수필가협회 및 세계시연구협회, 계간문인작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장편소설 '문학인', 시집 '내가 나를 죽여야 돼' 등 다수의 작품집과 '건강, 행복, 성공으로 사는 지혜' 등의 심리학 저서를 출간했다.

2014년 어느 봄날 초저녁,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정식 식당인 '뜰'에 20여 명의 재경 임순군 출신 고향 선후배로 구성된 모임(임순사랑회)이 열리고 있는 자리. 윤영일 회장의 인사말이 시작되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시니 참 반갑소. 우리가 40~50대에 처음 만나 20년 세월이 지났으니, 이젠 모두가 60~70대가 되었소. 그렇지만 회원님들의 얼굴을 보니, 아직은 새파란 젊은이들 같소. 나도 아직은 젊음을 잃지 않았소. 보시다시피 짧달막한 키에 계란 같은 내 얼굴을 보는 젊은 여자들마다, 지금도 나를 따르고 있다오. 젊었을 적부터 노가다 출신이라서 내 몸이 단단한 편이라오. 내가 지금 73세이지만, 젊게만 살고 싶다오. 여러분도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오. 나는 원래 아는 것도 적고, 말솜씨조차 없어서 두서없는 말을 했소. 양해 해주시오. 고맙소. 모두들 맛있게 잡수시고 좋은 얘기들 서로 많이 나누시기 바라오."

조금은 무식한 듯하나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윤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자리에 참석한 20여 명의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공용열 총무가 그간의 회원 동정에 대한 말을 했다. "김형성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집 '참회'가 발간되었습니다."라는 소개가 있자, 박수소리가 '뜰'의 천정을 꿰뚫을 듯한 기세로 이어졌다. 공용열 총무의 말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요, 또 빅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천종열 회장님 가문에 큰 경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천 회장님의 장남 혼사가 오는 6월 19일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안과의사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에, 회원들은 의아한 표정들이었다. 천종열 회장이야 돈은 많은 부자이지만, 그의 장남은 이름 없는 지방대학 출신이었고, 뚜렷한 직업조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축하한다'는 말을 천 회장에게 건네고 있었다. 이때 천종열 회장이 사전에 총무의 양해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의기양양한 태도로 말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복을 못 받고 태어나 초등학교 중퇴를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은 '수천억대' 부자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종종 이야기해왔던 대로, 나는 사실상 서울상대 출신이에요. 서울상대 출신보다도 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상대 출신이 개인적으로 나만큼, 돈 잘 번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나는 그까짓 것들 다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총무가 이야기한 대로, 내 장남을 오는 6월에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본래 목표한 대로 며느리나 사위만큼은 꼭 서울대학 출신을 데려오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서울대학교 출신 가문을 이루려고 했지요. 이번에 며느리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안과의사로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회원님 중에는 김 작가님과 양 교장님 같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은 있으시지만, 서울대학교 출신 며느리를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나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천 회장의 말이 계속되는 도중에, 회원 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무슨 재주로 그러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으니, 천 회장은 더욱 신바람난 듯 "참으로 좋은 질문이요.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됐소. 지금 이야기하지요. 중매쟁이에게 서울대학교 출신 며느리 감을 구해주면 소개비로 3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며느리의 친정 부모에게는 평생 동안 매월 천만원씩 생활비를 줄 것이고, 며느리에게는 개업함에 따른 모든 비용이 1백억 이상이 들어도 다 대줄 것이며, 손자를 낳아주면 서울 근교에 있는 내 땅 중에, 한필지로 되어있는 약 40만평의 땅과 그 지상에 있는 건물 10채를 손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만, 여러 사람이 서로 다투어 몰려옵디다. 돈이 좋기는 좋으나 봅디다.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임금으로 대했지요. 그리고 나는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던데요. 공무원들이요? 돈만 주면 무조건 내 요구대로 해주더라고요. 국회의원, 그들은 더욱 쉽습디다. 수시로 돈 천만원씩 손에 쥐어주면, 나더러 '회장님' 하고 허리 굽혀 인사해요. 그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훨씬 잘났지." 말을 듣고 있는 회원들이 평소에도 천 회장의 '삶의 질' 과 '인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터에, 위와 같이 말을 내뱉고 있으니 회원들 모두가 짜증스러운 인상을 짓고 있었다. 이것을 눈치챈 총무가 천 회장의 입을 막았다.

"천 회장님의 장남 혼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그날 예식장에 모두 오셔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순된 자아실현 의식의 늪에 빠진 채, 마구 말을 쏟아내던 천 회장이 미소를 볼에 띄우며 자리에 앉았다.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한두 잔씩 하다 보니까 별별스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 그러던 중에 천종열 회장이 김형성 작가를 향해 "어이 김 박사님, 김 작가님, 내 전기를 하나 써서 출판을 해야겠는데 어떻습니까? 전기 하나 쓸 만한 인물은 되지요? 나 같은 사람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하나 씁시다. 수고비는 서운치 않게 드리리다. 도와 주십시오."

천종열 회장이 살아온 발자취를 본다.

그는 1938년 당시 머슴으로 살아가던 '이비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두 살 때 장질부사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세 살 때 벼를 심다가 벼락에 감전되어 사망했었다. 고아가 된 그는 같은 부락에 살고 있는 큰아버지 집에 맡겨졌으나 큰아버지 또한 가난했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자마자 가출하여 시골 읍내에 있는 페인트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며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임금으로 대했지요"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그가 17세 되었을 때 페인트가게 사장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자식이 없었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사실상 종업원인 천종열의 영업활동에 의지하는 입장이 되어 "나에게 매달 생활비만 주고 네가 모든 것을 맡아 운영하라"는 부탁을 했고, 그 때부터 그가 그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몇 년 후 그는 서울 명동에 올라와 술집을 운영하였고, 1960~1970년대 강남이 개발될 무렵에 강남에도 똑같은 술집을 두 군데나 더 운영했다. 술집 세 곳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강남의 땅을 계속 사들였고 지금은 수천억대 부자 되어 돈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5-01405호(2015.03.11 ~ 2015.05.26)

1년 수익률 5.41%* 참조지수 9.42%

3년 수익률 16.28%* 참조지수 21.01%

5년 수익률 35.17%* 참조지수 47.28%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수익률

6년 동안,
한 해도 ** **빠짐없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각 해 연도말 1년 수익률 기준

국내 금리와 비교해 보세요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채권펀드

설정일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수익률**(세전기준)

	1년	2년	3년	4년	5년	설정이후
글로벌다이나믹채권펀드	6.11%	8.66%	18.59%	26.78%	39.67%	57.14%
종류A	**5.41%**	**7.24%**	**16.28%**	**23.49%**	**35.17%**	**51.32%**
참조지수	9.42%	11.70%	21.01%	36.49%	47.28%	52.24%

설정일: 2009.6.30 **순자산:** 6,467억 **참조지수:** [정기예금금리 + 150bp](50%) + KIS종합채권지수 (50%) **환매방법:** 제3(4)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7(7)영업일에 환매대금지급 *( )17시 경과 후 환매 신청시 적용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의 0.30% 이내 **환매수수료:** 해당없음 **총보수:** 연 0.66% (운용 0.30, 신탁 0.04, 판매 0.30, 사무 0.0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수익률**(세전기준)

	6개월	1년	설정이후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채권펀드	1.99%	6.11%	18.92%
종류A	**1.55%**	**5.20%**	**16.01%**
참조지수	2.01%	8.81%	21.48%

설정일: 2012.4.9 **순자산:** 4,315억 **참조지수:** [정기예금금리 + 150bp](50%) + KIS종합채권지수 (50%) **환매방법:** 제3(4)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7(7)영업일에 환매대금지급 *( )17시 경과 후 환매 신청시 적용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의 0.70% 이내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총보수:** 연 0.86% (운용 0.30, 신탁 0.04, 판매 0.50, 사무 0.02)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제로인 / 기준일: 2015.02.27 ■ 과거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참조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징상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의 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하기에 이 투자신탁의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으므로 참조지수로 활용

판매처: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신증권 동부증권 삼성생명 SAMSUNG 수협중앙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한국은행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BS 부산은행 citibank DGB 대구은행 HMC 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IBK 기업은행 IBK 투자증권 IM 아이엠투자증권 JB 전북은행 KB 국민은행 KDB대우증권 KDB산업은행 KEB 외환은행 KYOBO 교보증권 LIG 투자증권 MERITZ 메리츠종금증권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Standard Chartered SK 증권 true friend 한국증권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동정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e-메일** snua1969@naver.com 또는 news@snua.or.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수 상

黃秉冀(법학55-59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지난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만해축전에서 만해문예대상 수상.

金義卿(철학55-60 공연문화사업연구소 이사장) 오는 9월 4일 제60회 대한민국예술원상(연극·영화·무용 부문) 수상.

金東虎(행정56-61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지난 7월 23일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4회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 수상.

申榮福(경제59-63 성공회대 석좌교수) 지난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만해축전에서 만해문예대상 수상.

金學俊(정치61-65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지난 7월 24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安輝濬(고고인류61-67 모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오는 9월 17일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인문학 부문) 수상.

李慶秀(약학66-70 코스맥스 회장·약대동창회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리더십경영대상) 수상.

吳元錫(기계공학71-75 코리아에프티 회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글로벌경영대상) 수상.

李三善(지리교육75졸 한전산업개발 대표)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혁신경영대상) 수상.

任爀伯(정치71-75 고려대 교수) 오는 9월 17일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사회과학 부문) 수상.

吳秉熙(의학71-77 모교 병원장·본회 부회장) 지난 7월 24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李用熙(물리73-77 KAIST 특훈교수)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安圭里(의학74-80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 최근 한국·몽골 의학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 정부로부터 북극성훈장 수훈.

林光秀(금속공학74-8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

文昇鉉(화학공학79 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참교육경영대상) 수상.

崔羽植(법학75-79 前대구고등법원장) 지난 7월 21일 국민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 수훈.

高榮珍(농생물76-80 순천대 교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창조농생명과학대전에서 제18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

金湳均(임학78-82 한국임업진흥원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리더십경영대상) 수상.

金二求(국문78-82 문학평론가) 지난 7월 11일 평론집 '해묵은 동시를 던져 버리자'로 제4회 이재철아동문학평론상 수상.

李 根(경제79-83 모교 경제학부 교수) 오는 9월 17일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사회과학 부문) 수상.

趙恩禧(대학원84-87 서울시 서초구청장) 지난 7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신창조인대상(안전·생활환경 부문) 수상.

李永完(미생물86-91 조선일보 과학전문기자) 최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로슈진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자상' 수상.

尹洪晩(의학96-00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11회 국제위암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최우수상 수상.

朴洙完(AMP 63기 대교 대표) 지난 7월 7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3회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 수훈.

金周秀(AMP 69기 경북 의성군수)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창조경영대상) 수상.

李康德(ACAD 75기 경북 포항시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브랜드경영대상) 수상.

이태형(GLP 13기 다음에너지 회장) 지난 7월 20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중소기업품질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수소매연저감기 부문) 수상.

李弼雲(SPARC 16기 경기 안양시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창조경영대상) 수상.

張周鈺(AFP 12기 한국동서발전 사장)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成映穆(ASP 12기 신세계조선호텔 사장) 지난 6월 30일 제9회 국가 지속가능 경영 콘퍼런스 & 대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金相根(ASP 24기 상보 회장) 지난 7월 22일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盧運夏(AWASB 1기 파나소닉코리아 대표) 지난 7월 22일 TV조선 2015 경영대상(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인 사

權寧彬(사학61-65 前한국문화예술위원장) 지난 7월 8일 임기 3년의 KBS교향악단 이사장에 선임.

金秀勇(독문64-69 연세대 명예교수) 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에

서 신입 회원에 선출.

任敦姬(고고인류64-68 동국대 석좌교수) 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에서 신입 회원에 선출.

李慶衡(사회66-70 내일신문 칼럼니스트·본보 논설위원) 지난 7월 18일 서울신문 이사 겸 주필에 선임.

李相海(건축66-70 성균관대 명예교수) 최근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겸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에 선출.

李榮善(경제66-70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지난 7월 2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

金炯旿(외교67-71 前국회의장·부산대 석좌교수) 지난 7월 24일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회장에 취임.

朴承禹(농공학67-71 모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에서 신입 회원에 선출.

林玄鎭(사회67-71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에서 신입 회원에 선출.

李在奎(산업공학69-73 KAIST 석좌교수) 지난 7월 1일 임기 1년의 세계정보시스템학회(AIS) 회장에 취임.

柳漢一(재료공학70-74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 지난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키스톤에서 열린 세계고체이온공학회 총회에서 국내 최초로 차기(2017~2019년) 회장에 선출.

金敬眞(동물71-7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지난 7월 23일 한국뇌연구원(KBRI) 제2대 원장에 취임.

任洪宰(영문71-7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최근 임기 2년의 유엔글로벌콤팩트 동북아·중앙아·서남아를 대표하는 자문위원에 선임.

崔良熹(농화학72-76 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에서 신입 회원에 선출.

高榮秀(기계설계74-78 아셈시스글로벌 대표) 지난 7월 2일 삼양패키징 대표이사에 선임.

吳 俊(불문74-78 주유엔대표부 대사) 지난 7월 24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에 선출.

安圭里(의학74-80 모교 디자인동물이식연구소장) 최근 임기 5년의 세계이종이식학회 이사에 선출.

尹汝卓(국어교육74-80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 지난 7월 1일 임기 2년의 국어국문학회 회장에 선출.

宋承哲(영문74-81 前한림대 부총장) 지난 7월 7일 임기 4년의 강원도립대 총장에 선임.

金景植(경제75-79 前주쿠웨이트 대사) 지난 7월 12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에 선임.

吳守根(법학75-79 이화여대 교수) 지난 7월 2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6대 이사장에 선출.

朴大權(경제77-81 한양대 교수) 지난 7월 20일 임기 1년의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에 선임.

李完洙(법학77-81 前서울고등검찰청 검사·변호사) 지난 7월 22일 감사원 사무총장에 취임.

黃仁泰(경영77-81 중앙대 교수) 지난 7월 1일 한국회계학회 제34대 회장에 취임.

金賢雄(법학78-82 前법무부 차관·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난 7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

金英豪(사회교육80-84 감사원 사무총장·본회 상임부회장) 지난 7월 22일 감사원 감사위원에 취임.

尹琮源(경제80-84 前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난 7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내정.

康仁洙(경제81-85 前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숙명여대 교수) 지난 7월 10일 현대경제연구원장에 선임.

柳炅基(정치81-85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 1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

沈五澤(행대원81-87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지난 7월 20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내정.

白泰雄(공법81-90 하와이대 교수) 지난 7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에 선임.

金相憲(사법82-86 네이버 사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지난 6월 30일 국립극단 이사장에 임명.

全萬福(행대원85-88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부총장) 최근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부의장과 행정예산위원회 위원에 선출.

金學玟(대학원86-88 경희대 연극영화과 교수) 지난 7월 3일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임명.

吳 均(행대원86-92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지난 7월 20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에 내정.

孫載榮(원자핵공학83-87 前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7월 9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에 선임.

陳輝娟(고고미술84-88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지난 7월 3일 임기 3년의 서양미술사학회 제14대 회장에 선출.

2016 서울대학교 달력 사진/그림 공모전

35만 서울대학교 동문과 함께하고자 〈2016 서울대학교 달력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대상 서울대학교 구성원
응모 내용 서울대학교의 사계
(단, 건물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응모 일자 2015년 9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사진 3,000픽셀 이상, 해상도 300dpi
-그림 펜화, 수채화
*스캔 후, 이미지로 첨부해 주세요.
스캔하기 힘든 경우 원본을 보내 주시면 스캔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파일명 해당 건물 이름_응모자 이름(소속)
보낼 곳 kasica77@snu.ac.kr
문의 서울대 출판문화원 장혜원(기획팀)
Tel 02-878-1723 **Fax** 02-889-0782
공모에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며, 당선된 작품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제작하는 2016년 달력에 작품과 이름이 게재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무료)
1577-2050
www.nnoble.co.kr

朴相熙(AMP 26기 중소기업진흥회 회장) 최근 대한야구협회(KBA) 제22대 회장에 선출.

金椿鎭(AIP 14기 국회의원) 지난 7월 3일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초대 의장에 선출.

李悌源(ACPMP 8기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지난 7월 1일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임명.

安鎬元(HPM 6기 한국보건의료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분과위원, 법무부 청소년분과위원에 위촉.

金炳秀(SGS 16기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7대 원장에 취임.

趙庸滿(ALP 3기 두산타워 부사장) 지난 7월 24일 패션 전문 쇼핑몰 두산타워 대표이사에 선임.

黃殷淵(ALP 12기 포스코에너지 사장) 지난 7월 15일 포스코 경영인프라 본부장에 선임.

李得洪(AFP 15기 前 법무연수원장·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난 7월 21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문철상(ABKI 5기 신협중앙회 회장) 지난 7월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세계신협협의회 임원선거에서 이사에 당선.

행 사

鄭秉起(농경제52-57 용인시 노인복지관 탁구사랑동우회 고문) 지난 7월 23일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여가 생활과 교양' 주제의 제1회 열린 강좌 개최.

李採柱(법학53-57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지난 7월 27~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金芝希(응용미술59-63 자연염색박물관장)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時代의 藝術'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玄敬大(행정60-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본회 부회장) 지난 7월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장진호전투 기념비 기공식에 참석.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지난 7월 21일 적십자사 강당에서 모금전문가(펀드레이저) 66명 위촉식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지난 7월 30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 국유부동산 개발협력의 정책방향 및 방안 모색'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李漢龜(철학64-68 경희대 석좌교수) 지난 5월 9~30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8기)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

金一燮(경영64-69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본회 부회장) 지난 7월 7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全孝澤(자원공학67-71 모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최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일본자원지질학회 '한국과 일본에서의 광물자원' 조인트 심포지엄에서 특강.

金允植(행대원68-70 메릴랜드대 한국분교 교수) 지난 6월 20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학 강의의 일환으로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2차 세계대전 및 일본 진주만 공격에 대해 강의.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 지난 7월 9일 서울 행당동 교보빌딩에서 국가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안보 특강.

金貳煥(신대원72-7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장)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安智煥(성악73-77 신라대 교수·그랜드오페라단장) 오는 8월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All That BIZET, All That OPERA' 갈라콘서트 개최.

韓洪傳(법학77-81 한국국방연구원장) 지난 7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남북분단 70주년을 맞아 특별세미나 개최.

任道彬(사회교육79-83 모교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 지난 7월 16~18일 상명대 천안캠퍼스에서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 개최.

白淳根(교육80-84 한국교육개발원장) 지난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시설·환경 선진화 지원 시스템 소개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사업 성과 발표회 개최.

李昌雲(환대원80-85 한국교통연구원장) 지난 7월 23일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일본의 최근 버스운송산업 시장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黃普錫(불어교육80입 번역가) 지난 7월 28일 캄보디아 출신 바데이 라트너의 저서 '나는 매일 천국의 조각을 줍는다'(자음과모음刊)를 번역 출간.

禹相浩(서양화89-93 서양화가·벽화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리엔박갤러리에서 'crying' 주제로 개인전 개최.

김정수(기악98-03 바이올리니스트) 지난 7월 1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趙浩根(생명과학00-09 번역가) 지난 7월 24일 미국 SF작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 30여 편이 담긴 '레이 브래드버리'(현대문학刊)를 번역 출간.

조용우(기악01-06 콘트라바시스트) 지난 7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보테시니,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귀국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개최.

金成浩(ALP 15기 행복세상 이사장) 지난 7월 15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에서 '법치가 경제를 살린다'를 주제로 제3회 행복포럼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金兌鉉(법학46-50 前대법관) 7월 12일 별세(92세)
權寧贊(정치49-56 前건국대 총장) 7월 13일 별세(87세)
李海遠(행정51-55 한국우드워드 회장) 7월 8일 별세(83세)
李源植(농경제53-57 前경북 농촌진흥원장) 7월 3일 별세(81세)
金洪雲(지리교육54-58 前한양대 교수) 7월 26일 별세(81세)
朴在滿(독문54-58 前조선대 교수) 7월 5일 별세(80세)
河史浪(경제54-59 前정산철강 회장) 7월 14일 별세(80세)
黃海東(영문62졸 前아주대 교수) 7월 17일 별세(84세)
張敦植(의학56-62 前정원종합복지원 대표) 7월 14일 별세(78세)
崔斗永(사회교육78-83 지방행정연수원장) 7월 5일 별세(55세)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차별화된 개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에서 경험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8~40층 | T : 02-2112-5500 | F : 02-2112-5554 | http://healthcare.snuh.org

BOOK

金俊鎬 외 지음
새유토피아刊
비매품

어느 해 우리 가족의 정겨운 파노라마

모교 생명과학부 金俊鎬(생물교육50-55)명예교수가 1979년 2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연구차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인 朴始鉉(생물교육54-58)동문, 자녀(3녀1남)와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서한집.

3백여 통의 편지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토로하고,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겨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표지는 외손녀(김은지)가 디자인했으며, 며느리(이정은)가 책 말미에 "가족은 서로 사랑함이 당연시되는 관계이지만 가정을 건강하게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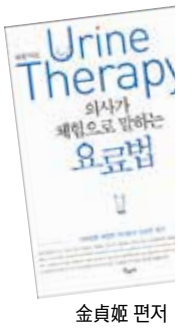
朴鍾大 지음
고요아침刊
값10,000원

풀잎 끝 파란 하늘이

한국시조문학상, 월하시조문학상 수상자인 시조시인 朴鍾大(국어교육51-56)동문이 여섯 번째 작품집 풀잎 끝 파란 하늘이를 펴냈다.

비매품 30부 한정 수제품인 시선집 '칠칠 동산'을 고치고 덜고 더한 증보판이다. 주로 대화체로 이뤄진 작품들을 접하는 순간부터 특이한 인상을 받게 된다.

권말에는 어려운 평설을 피하고, '소통 공감 동행을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작가의 색다른 메모가 수록돼 있다.



金貞姬 편저
산수야刊
값10,000원

의사가 체험으로 말하는 요로법

자신의 오줌으로 병을 치유하는 요료법을 체험한 의사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이 책은 그간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요료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MCL연구회 金貞姬(생물52-56)회장에 의해 출간됐다.

요료법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을 Q&A에 담고 있으며, 저자는 요료법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20여 년을 회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느낀 점을 이 책에 담았다.

金東吉 지음
기파랑刊
값11,500원

당뇨·비만환자여, 사카린을 먹어라

지난 3월 23일 미국 덴버에서 개최된 제249차 미국화학학회(ACS) 전국학회에서 사카린의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사카린은 단맛이 설탕의 3백배이지만 칼로리가 제로이고, 혈당 지수도 제로다. 따라서 '사카린 전도사'인 경인양행 金東吉(화학교육57-61)명예회장은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되는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에게 사카린은 축복받은 감미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사카린은 열에 강하고 물에 잘 녹아 식품 첨가물로서도 그만이며, 甘味度 차이를 감안하면 값도 설탕의 30분의 1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강조한다.

金守經 지음
문학정신사刊
값15,000원

전쟁이여 가거라

EL치과병원 金守經(치의학58-63)이사장이 다양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인류는 왜 전쟁을 할까. 전쟁이란 무엇이며 전쟁의 결과로 무엇이 남을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전쟁은 문화를 따라 다녔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원시 전쟁이었고, 자기의 욕망과 과시를 위해 현대 전쟁이 성립됐을 것이다.

金동문은 "천년, 만년 이어질 지구에 문화와 꿈 그리고 철학이 흐르는 도시와 인류에게 폭격을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쏘는 야만적인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崔一玉 지음
그물刊
값16,000원

엄마의 뜰

해방, 6·25,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녀 3대의 운명적 만남, 그것은 필연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편집공방(주) 미디어월드 崔一玉(미학65-69)대표는 이 잊지 못할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의 전모를 주인공 '기연'을 중심으로 그 어머니와 딸, 모녀 3대의 이야기로 풀어간다. 그림을 그리는 기연의 딸 '연아'와 소설을 쓰는 친구 '경미'의 대화에서 시작되는데, 경미의 소설이 그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액자소설 형식이다. 그런가 하면, 잊혀져 가는 6·25전쟁사의 역사적 사실과 장소 등을 배경으로 작가는 가족애와 인간애의 중요성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여름 휴가철 읽을 만한 책'으로 이 책을 선정하기도 했다.

黃壽淵 외 옮김
리버티刊
값12,000원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72-79)교수가 로버트 비시의 책을 번역했다.

지방 및 도시 행정 연구에 공공선택 접근법을 적용한 책이다.

지방 및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 광역화가 잘못임을 밝히고, 가능하면 작은 정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 큰 정부 단위가 작은 정부 단위에게 주는 교부금의 성격도 정부간 代償관계로, 큰 정부 단위가 필요한 서비스를 작은 정부 단위에서 구입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ONCERT

徐允晋 피아노 독주회

8월 28일 예술의 전당
공연문의 : 마스트미디어 541-3150

피아니스트 徐允晋(기악94-98)동문(사진)이 8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Summer Night in Red and Blue'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徐동문은 데뷔 독주회를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가졌고, 그 연주에 대해 줄리어드 음대 Herbert Stessin교수로부터 "황홀한 선율과 비범한 기교를 지닌 이 시대의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광주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徐동문은 이날 알베니스, 파야, 볼콤, 카푸스틴, 거슈인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安容昊 지음
서울대출판문화원刊
값10,000원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들려주는 우울증

모교 정신과학교실 安容昊(의학83-89)교수가 모교 병원 Health+ 시리즈 아홉 번째로 우울증에 대해 설명한다. 마음이 우울한 것이 병일 수 있다면, 얼마나 우울해야 우울증인가? 시험을 못 보면, 연인과 헤어지면,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면, 중한 병에 걸리면, 누구나 우울하다고 느끼지 않나? 그렇다면 어떨 때 치료를 받아야 하나? 주변에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하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저자는 명쾌한 답을 준다.

우울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우울증을 일찍 발견하고 정확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다.

張漢植 지음
산수야刊
값16,000원

오랑캐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

KBS 경제부장, 사회부장, 해설위원 등을 지낸 張漢植(신문83-87)동문이 1억 대국을 정복한 1백만 오랑캐 만주족의 성공 비결을 소개한다.

G2로 급부상한 중국.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관광 등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국력증대와 함께 고구려사를 탈취하고 서해 어장을 침해하는 등 적잖은 부담이 되는 만큼,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할 지를 논할 시점은 무르익었다. 저자 張동문은 이 책의 집필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대국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만주족들은 말해줍니다. 만주족은 특히 1636년 병자호란을 통해 조선도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실패를 이해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만주족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성은 다분합니다."

姜瑞求 지음
체크박스刊
값49,000원

미국법의 이해

Huawei Technologies 법률 고문인 姜瑞求(공법90-95)동문이 미국법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입문서를 펴냈다.

한국과 미국이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국제 교역도 확대되면서 한국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미국법을 알아야 할 때가 됐고 그 나라 법률체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 책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계약과 협의를 하는 사람도 유용하게 쓰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LOTTE CHEMICAL

www.lottechem.com

자세히 보면 화학이 보입니다!

Global leading chemical company 롯데케미칼

행복한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효성의 작은 노력들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로 모두의 앞선 생활을 만들어 가는 효성이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위한 효성의 작은 노력은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베트남 무료 진료 활동

장애 아동 청소년 음악교육 지원사업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 운영

■ **사회적 기업 운영 :**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 운영, 함께하는재단 사업 후원, 효성ITX 행복 두드리미 운영 ■ **글로벌 나눔 :** 베트남 무료진료봉사 활동 (미소원정대), 해외 사업장 장학 사업 ■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취약계층 여성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응급 지원, 나라사랑보금자리 후원 (국가유공자 집 고쳐주기) ■ **지역사회 나눔 활동 :** 급여나눔을 통한 사랑의 쌀 전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전달,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희망나눔 페스티벌 후원, 1사1촌 활동, 1사1교 활동 ■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 저소득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 전경련 보육사업 지원, 주니어 공학교실 운영 ■ **문화지원 활동 :** 요요마 & 실크로드 앙상블 글로벌 파트너, 장애 어린이 음악 교육 지원, 문화유산보호활동, 현대미술관회 후원, ACSI KOREA 연합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름캠프 후원

HYOSUNG

결혼 대명위드원 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대표리조트기업 대명그룹 계열사
대명위드원
결혼정보회사 1588-3883
결혼 대명본웨딩 준비 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리조트기업 대명그룹 계열사
대명본웨딩
웨딩컨설팅 1644-2229
대명레저산업 (국내대표 레저사업 대명리조트/오션월드/소노펠리체 CC 등) | 대명홀딩스 | 대명건설 | 대명코퍼레이션 | 대명라이프웨이 | 대명문화공장 | 대명버스라인 | 대명컨벤션 | 대명복지재단

도수형 스포츠 CSE RX 렌즈
CSE Prestige
CORRECTIVE SPORTS EYEWEAR
WWW.YEONSPORT.COM

도전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꿔갑니다
대한민국 산업공구의 중심 크레텍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공구. 이 공구를 위한 노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크레텍은 국내에 유통되는 12만 5천여 산업공구에 대한 정보를 분류 집대성해 카탈로그로 발행하고,
업계 최초로 표준 가격제와 바코드 시스템, 전자주문 및 제품정보 디지털화를 구현해 산업공구 유통혁신을
이뤄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산업공구의 가치를 담아 내일의 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크레텍 책임
SINCE 1971
CREative + TEChnology
CRETEC
ctx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15년 6월 1일~30일 | **연회비** 82,500,000 | **평생회비** 38,600,000 | **입회비** 850,000 | **계** 121,950,000 | **2015년 누계 697,450,000**

총동창회비 납부 계좌 (성명과 입학연도 기재)
농협 079-01-442414 |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 **국민** 827-01-0248-009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회장단·고문·자문위원·관악회·상임이사·논설위원 : 2015. 6. 1~7. 22
평생회비 : 2015. 6월 납부자
연회비 : 이사(2015. 6. 8~2015. 7. 22) / 일반(2015. 6. 8~2015. 7. 22)
성명 우측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신영균 - 1백만원
△부회장 이해원 - 1백만원
△부회장 이길여 - 1백만원
△부회장 성백전 - 1백만원
△부회장 민경갑 - 1백만원
△부회장 이금기 - 1백만원
△부회장 김찬숙 - 1백만원
△부회장 윤세영 - 1백만원
△부회장 손경식 - 1백만원
△부회장 이수빈 - 1백만원
△부회장 홍성대 - 1백만원
△부회장 박성훈 - 1백만원
△부회장 유상부 - 1백만원
△부회장 김영무 - 1백만원
△부회장 현경대 - 1백만원
△부회장 황채호 - 1백만원
△부회장 박호전 - 1백만원
△부회장 김경한 - 1백만원
△부회장 박용현 - 1백만원
△부회장 오 명 - 1백만원
△부회장 김종섭 - 1백만원
△부회장 변영진 - 1백만원
△부회장 김기병 - 1백만원
△부회장 신창재 - 1백만원
△부회장 최수현 - 1백만원
△부회장 류 진 - 1백만원
△부회장 나경원 - 1백만원
△부회장 정팔도 - 1백만원

고 문

△하영기 - 10만원 △김상하 - 10만원
△백문기 - 10만원 △조필제 - 10만원
△정원식 - 10만원

자 문 위 원

△변상현 - 1백만원 △김창식 - 1백만원
△원정수 - 1백만원 △김현산 - 1백만원

관 악 회

△이사 한두진 - 30만원
△이사 안성철 - 30만원
△이사 정계영 - 30만원
△이사 박명윤 - 30만원
△이사 김병순 - 30만원

상 임 이 사

△김진국 관악언론인회장 - 20만원
△권오성 GLP동창회장 - 20만원

논 설 위 원

△김철수 - 10만원 △안국정 - 10만원
△이경형 - 10만원 △이동식 - 10만원
△허승호 - 10만원 △강효상 - 10만원
△정성희 - 10만원 △김광덕 - 10만원
△강경희 - 10만원 △신예리 - 10만원

평생회비 _ 이사

△강민균 경영 90 △강승준 법대 85
△권태명 AMP 74 △김병철 GLP 17
△김순옥 음대 73 △김용민 농대 88
△김혜영 사대 80 △남일순 공대 81
△박동욱 치대 67 △박성규 공대 57
△박영관 의대 58 △박일영 약대 85
△박재식 BCP 10 △박태욱 자연 95
△성활경 공대 69 △신동열 HPM 28
△심풍수 공대 76 △안순신 공대 69
△안종찬 공대 69 △여운돈 수의 71
△오창석 공대 69 △윤종수 AMP 23
△윤홍근 법대 79 △이강환 APC 18
△이건종 법대 72 △이규승 농대 67
△이병기 공대 70 △이용운 APC 13
△이원재 치대 72 △장성원 법대 99
△정호균 공대 69 △정홍길 經院 89
△정회정 경영 94 △최수연 의대 90
△최이화 GLP 11 △한남희 공대 75
△홍인수 사대 74

평생회비 _ 일반

△권인오 인문 90 △김경우 의대 93
△김관우 농대 83 △김낙훈 법대 99
△김동근 사대 01 △김명혜 AMP 78
△김병준 MBA 13 △김연중 공대 09
△김영동 자연 79 △김영선 사대 87
△김현준 공대 93 △김혜영 치대 83
△남미현 수의 01 △남상섭 수의 87
△남상헌 수의 69 △도성해 농대 88
△도재호 공대 68 △류성현 사회 94
△류승욱 농대 86 △박대주 사회 09
△박병건 사대 86 △박옥만 법대 65
△박자경 농대 10 △박중언 농대 62
△방장훈 의대 68 △백승구 사회 90
△베니에거 공대 03 △손동호 상대 53
△송규현 경영 93 △송석훈 문리 60
△송종관 농대 52 △신영화 GLP 30
△신현우 의대 63 △여인동 사대 99
△오영자 약대 55 △오영택 공대 08
△오주환 농대 84 △유해수 상대 67
△유형열 농대 78 △윤희숙 사대 54
△이계광 AMP 78 △이금희 간호 10
△이민정 농대 03 △이시규 농대 73
△이용욱 공대 91 △이준걸 의대 88
△이진철 AWAS 1 △이진호 농대 90
△이혜주 미대 69 △이희경 법대 99
△임영수 AMFR 8 △장진호 의대 81
△장해경 HPM 32 △전병곤 공대 90
△전석수 농대 62 △정명자 간호 57
△정민석 공대 08 △정은철 공대 89
△진은주 미대 85 △최인진 공대 91
△최호선 공대 08 △최홍석 MBA 11
△하명수 공대 58 △한재훈 공대 93
△한휘언 농대 62 △허 범 공대 85
△허 장 사회 82 △홍영진 공대 89

연회비 _ 이사

◆인문대 △고재학 82 △김태현 75
△서노원 81 △소대봉 84 △이건협 86
△이준호 91 △홍종선 75
◆사회대 △권태훈 87 △김만환 79
△김소용 79 △김형규 85 △김홍석 83
△류성록 82 △문준석 92 △민병덕 90
△박기성 94 △박찬욱 72 △신기덕 74
△이목희 71 △이상헌 82 △이원백 84
△이재열 80 △이종선 87 △임성만 81
△임영탁 80 △전승철 81 △전주현 90
△정동철 80 △정봉교 72 △최완근 81
△홍기현 76
◆자연대 △강봉균 80 △김성기 77
△김정범 88 △진 민 78 △최진우 75
◆간호대 △최선희 91
◆경영대 △김명관 82 △김선구 73
△김형석 82 △박주선 86 △송덕호 78
△안남기 87 △안병룡 84 △안철환 88
△오태일 73 △진영곤 75 △최성원 88
△최순정 88 △최용일 89 △하형석 87
◆공대 △곽병헌 67 △권오준 02
△김광옥 56 △김덕우 81 △김덕재 54
△김명수 73 △김문경 61 △김성기 80
△김성환 66 △김영학 00 △김정선 81
△김정인 94 △김지수 76 △김진기 87
△김창락 78 △김학세 65 △김홍식 76
△김 훈 71 △노융래 72 △류무열 77
△모중환 01 △박경수 76 △박두곤 53
△박재룡 68 △박종규 88 △박진수 70
△박홍춘 71 △박화규 77 △변창훈 70
△서광벽 73 △송하영 74 △신동성 64
△신동식 51 △안상순 65 △어성준 67
△여동욱 86 △윤극노 62 △이금석 59
△이덕원 75 △이문희 59 △이병철 80
△이성원 58 △이세형 81 △이승기 70
△이승우 69 △이종길 87 △이중재 64
△이춘성 71 △이태헌 95 △이홍중 67
△임서환 67 △임일택 84 △정재영 70
△조규남 72 △조영주 74 △조완구 71
△최병홍 78 △최종옥 69 △최준식 71
△최현수 85 △최호근 83 △허욱렬 70
△황일인 59
◆농대 △강원봉 77 △곽지상 52
△김영조 82 △김정곤 72 △김종률 72
△김종훈 67 △김희성 61 △민순홍 74
△박동규 56 △박선현 71 △박옥임 70
△박한수 82 △배기식 54 △부경생 60
△사공문 72 △서정연 82 △손환규 64
△오승관 77 △이무근 60 △이상용 61
△이원덕 80 △이태일 71 △이희수 80
△정상호 86 △조영래 82 △조재구 83
△지원철 73 △최원규 64 △하병찬 87
△한재용 80 △허길행 65
◆문리대 △구봉회 62 △김수진 57
△김찬근 69 △노재봉 53 △박의송 60
△박정무 59 △양이훈 65 △오종발 68
△윤상철 55 △이영훈 64 △이용화 53
△조영수 64 △채영수 68 △최 웅 69
△황경호 54
◆미대 △김용진 79 △김 정 70
△김제응 60 △유영일 83 △장채일 78
△정종미 76
◆법대 △강수진 89 △강일원 78
△구본민 77 △권은민 82 △기우종 85
△김관재 71 △김남근 82 △김병국 66
△김부찬 74 △김시영 71 △김영훈 54
△김이수 72 △김인중 56 △김재덕 73
△김정보 67 △김제식 77 △김종구 59
△김종호 80 △김진환 67 △김호응 72
△문상일 84 △박강회 83 △박성귀 71
△성시웅 77 △성지용 82 △송상규 84
△송쌍종 61 △안건희 78 △오세헌 78
△우창록 70 △유기준 78 △유 훈 49
△윤경희 65 △이건주 82 △이기웅 50
△이동명 75 △이병호 86 △이성호 76
△이우근 67 △이원규 75 △이재방 78
△이정훈 89 △이준상 85 △이철승 78
△이태운 68 △전병식 70 △정준영 85
△정호영 66 △조동주 53 △조수현 94
△조용무 60 △조정규 68 △조중한 65
△조태열 75 △지성우 66 △차한성 72
△최근선 54 △최병륜 56 △최성우 81
△최정헌 75 △홍광식 67 △황의인 74
△황찬현 72 △황철규 83
◆사대 △김병식 81 △김선주 76
△김성대 59 △김윤미 94 △김종화 68
△김종훈 79 △김찬규 83 △김찬균 54
△김천수 58 △김호성 90 △노갑기 66
△문제세 71 △박병기 81 △박상필 76

△박세원 70 △박종현 70 △방재욱 68
△배영철 79 △복완근 74 △여태철 84
△오두범 64 △이은희 92 △정운긍 71
△정하경 76 △최안기 70 △하상기 74
△함오연 67

◆상대
△김상희 66 △김창수 68 △박동순 57
△백창기 61 △선종승 71 △손상모 53
△신세길 57 △신해철 69 △우찬목 55
△유장희 59 △유진무 62 △이광수 50
△이동혁 65 △이상윤 62 △임종두 61
△전문준 64 △정태웅 67 △조문규 57
△조영삼 71 △조원구 64 △최명해 68
△최종인 61 △최행주 66

◆생활대
△류국영 84 △이용호 78

◆수의대
△김경환 80 △김한태 78
△남궁선 57 △방극승 64 △서동진 81
△이범준 78 △지차호 70

◆약대
△김기술 71 △김수경 57
△김진형 88 △맹민영 56 △손정식 73
△심우원 72 △오성환 60 △임경택 52
△정선회 82 △조영인 80 △주승재 86
△주학유 70 △최광조 68

◆음대
△김숙이 73 △김혜중 69
△박정자 60 △송지윤 84 △유신선 79
△유행웅 60 △장해리 82 △최영택 74

◆의대
△김동은 52 △김종성 71 △김창욱 72
△남도현 84 △노충희 70 △맹국영 68
△목정은 60 △박상용 57 △박영관 58
△박춘식 72 △박호진 72 △서창석 79
△안제환 66 △유세화 65 △유재란 82
△유현덕 77 △이두한 76 △이병훈 60
△이상곤 73 △이상훈 95 △전영훈 74
△정동철 54 △정 민 75 △정영덕 70
△황대용 80

◆치대
△김현제 87 △박홍규 71 △서성구 74
△신언일 71 △신정훈 65 △안순찬 83
△연태호 81 △이규철 64 △이동악 70
△이병우 76 △이상표 77 △이시우 59
△이진근 63 △이택훈 71 △임채균 53
△정원용 52 △정유철 78 △정재영 70
△주광섭 73 △한성희 92 △한우석 76

◆대학원
△남재국 88 △문두길 87
△박동준 80 △박성호 95 △서상혁 79
△이범걸 82 △이석연 81 △이은성 83
△이희성 81 △장승재 83 △한상서 95

◆경대원
△김선대 72

◆보대원
△김진한 87 △송달옥 72
△유승진 99 △조경복 92

◆신대원
△유일상 72 △이근수 67

◆행대원
△유금록 78 △장성호 85

◆환대원
△박형석 74 △이평재 73

◆AMP
△고은봉 33 △김상훈 68
△남중철 48 △박철홍 51 △서종덕 12
△오도환 72 △육신학 57 △이규식 54
△이병구 16 △이병성 2 △이상주 70
△이정식 13 △정형택 6 △조형수 58
△허덕행 2

◆AIP
△박승옥 21 △박정오 16
△백종한 47 △유영준 47 △이두평 8
△이충언 14 △임종한 15 △장진영 49
△진영환 9

◆ACAD
△권도중 49 △권오형 73
△김점수 74 △서정만 18 △유현규 74
△윤석준 33 △이강국 63 △정재호 76
△정진문 65

◆ABP
△류광하 7 △서재선 40
△정시택 23 △허 영 14

◆SGS
△김호영 2 △이경민 19
△이래원 6
△구본석 78 △김각균 71

◆HPM
△김동량 27 △김명중 6
△김정자 20 △최낙원 16

◆AMPP
△방석관 1 △엄재구 6
△이영석 5 △이태규 13

◆AIC
△왕진원 11 △이강록 13
△조강연 30 △차상훈 33

◆AFB
△조수환 12 △최태봉 8

◆AMPFRI
△김경호 20 △서재용 22
△임한택 6 △천병기 19

◆ACPMP
△김종하 6 △박철훈 8
△이경범 9 △임전수 6

◆FIP
△여호철 10 △정운열 8

◆GLP
△김경식 2 △류명선 21
△박삼수 24 △오윤석 16 △윤재호 14
△전진규 16

◆ALP
△권동환 2 △김영진 16
△김홍주 4 △이경훈 18 △이광수 15
△조찬휘 16 △좌상봉 12

◆SPARC
△김 건 8 △김미아 23
△김해명 13 △이수원 15 △임장주 11
△최종협 19

◆AFP
△양오승 11 △이광만 4
△이동영 9 △조동일 8

◆ASP
△김용두 25 △문병철 11
△조성목 23 △채수철 15 △최종혁 12

◆IFP
△백종화 2 △이건훈 4

◆BCP
△박재식 10 △최성원 2

◆ABKI
△김봉규 1

연회비 _ 일반

◆인문대
△김영목 72 △김종원 98 △김효정 10
△연장현 08 △윤봄이 08 △이범신 06
△이인영 09 △이준상 65 △전재석 10
△조현경 05 △최기용 74 △홍은미 10
△황진상 98

◆사회대
△김세준 08 △김운회 80 △박상훈 87
△방진욱 91 △백승준 00 △우수경 10
△윤민수 04 △이찬복 98 △전준희 07
△최영섭 86 △최종연 90

◆자연대
△김영롱 07 △김정은 06 △박용진 05
△손정배 11 △연혜민 08 △이상훈 11
△정민경 00 △진교문 83 △최우식 08

◆간호대
△범지현 03 △이지향 11 △이진솔 09
△이혜윤 99 △장지은 10 △조윤정 11

◆경영대
△김창식 80 △송서윤 12 △안대훈 04
△윤한웅 82 △이복한 99 △조은아 13
△최병희 95 △황동철 75

◆공대
△김덕환 04 △김세진 47 △김우진 05
△김정훈 03 △김형호 98 △문제춘 71
△박선영 09 △박헌주 88 △백세흠 66
△성지윤 12 △신현식 50 △오경찬 10
△유병철 09 △윤형돈 94 △이승률 55
△이원섭 63 △이희발 72 △임형열 05
△전대극 96 △조재훈 08 △최의원 54
△하명수 58 △홍희선 54

◆농대
△고일웅 61 △김 진 11 △김경민 79
△김교창 53 △김인기 60 △김재인 62
△나용준 53 △민재용 08 △박봉현 68
△박선영 62 △박종효 58 △백양빈 58
△백현종 09 △성우경 50 △신경준 76
△신정균 54 △안승요 51 △양석홍 55
△양창범 95 △유병현 61 △이슬비 10
△이유진 10 △이정연 92 △이형익 64
△정강배 85 △정봉수 63 △정춘희 57
△정태성 62 △최동아 06 △한성식 58
△홍성각 58 △홍순흥 58 △홍의표 58

◆문리대
△강학철 55 △김상균 66
△김용달 57 △김장환 62 △김정숙 58
△김종엽 61 △김 진 64 △김형효 58
△김홍철 53 △남기진 65 △박의일 61
△서병현 53 △서연호 57 △신건호 57
△양영수 67 △엄석정 71 △이상근 59
△이양길 60 △이영훈 65 △이춘기 54
△임채욱 57 △정익성 57

◆미대
△강정원 91 △김승주 13
△연경자 59 △유지영 09 △유희송 11
△이상은 86 △이환범 73 △정영조 55
△조은지 13 △황인혜 65

◆법대
△경익현 57 △김근조 60
△김기현 57 △김상구 55 △김정준 02
△김종국 65 △김진범 76 △류채령 06
△문진구 01 △박주환 63 △박천서 56
△성준경 08 △손재식 52 △신근식 63
△신영수 98 △이종일 55 △이한구 57
△정기돈 78 △정재형 58 △조병선 57
△조봉균 58 △조성기 68 △조영동 57
△천해성 83 △최동규 83 △최중현 59
△하성대 49 △한동우 66 △한상술 58
△호영진 56 △황도연 52

◆사대
△강철인 66 △고경순 61
△김경자 58 △김명수 68 △김명자 45
△김성태 54 △김수웅 60 △김은숙 51
△김은재 45 △김재윤 53 △김점호 90
△김주경 55 △김주환 64 △김학찬 62
△민혜식 52 △박성수 61 △박성희 90
△박종대 51 △엄예나 11 △염도균 59
△유건필 78 △이창호 71 △이형근 80
△인안숙 54 △조혜지 10 △주윤수 66
△천석현 55 △최양자 68 △최희주 52
△태정원 09 △한공우 53 △현재복 56
△홍정희 55 △홍현선 94 △황인석 08

◆상대
△김상남 66 △김용민 70 △김윤재 53
△김종해 51 △김한오 53 △김형철 69
△박병환 50 △배홍규 53 △윤하균 55
△이건재 52 △이기홍 50 △이성재 53
△이영호 46 △이용원 58 △장기선 66
△조흠원 64

◆생활대
△윤지실 09 △임정빈 57
△정양호 63

◆수의대
△김길성 60 △김영무 60
△김정근 50 △서동일 55 △최민철 75
△황명수 74

◆약대
△김광우 66 △김원선 54
△김종윤 53 △박영준 84 △송희성 60
△이월희 53 △이해빈 54 △최 숙 84

◆음대
△윤유정 11 △이동남 66
△조길자 62 △한태원 73 △홍순미 71

◆의대
△김래형 10 △김미림 10
△김우철 11 △김은주 84 △문성윤 09
△박현승 77 △성낙응 44 △신용찬 54
△이도희 78 △이윤석 13 △정세희 97
△황진영 12

◆자유전공
△이수연 12 △최지범 10

◆치대
△김공배 58 △김관식 69
△김민수 56 △김선일 58 △박건배 70
△서가진 79 △안성모 68 △이광건 73
△이진구 12 △채윤필 80

◆대학원
△박미경 93 △유영상 89

◆MBA
△이승현 13 △장정호 13

◆경대원
△권영천 66 △남상원 92
△장만기 66

◆법대원
△노태영 09

◆보대원
△여현태 65 △최용어 67

◆의대원
△강남규 11 △조현재 11
△김수연 11 △박기현 11
△이상미 03 △최경희 94

◆환대원
△이 혁 07

◆융대원
△강진아 13

◆AMP
△권익균 78 △김경덕 18
△김관수 61 △김성환 25 △김종길 29
△문승윤 78 △민영복 42 △박종인 42
△성영창 26 △유시종 19 △유영걸 26
△이강남 44 △이계광 78 △이태교 4
△이화일 13 △허 열 39 △홍종대 4

◆AIP
△김성주 52 △서영주 46
△안태철 52 △이병민 28 △이천우 13
△채대석 15 △한상규 21

◆ACAD
△김우식 79 △우기훈 72
△유낙준 45 △이영기 27 △조욱제 77
△최남진 34 △최성룡 68

◆ABP
△김경화 45 △김영군 15
△김종욱 29 △박길태 11 △이용범 28

◆SGS
△이강수 30 △최현호 30

◆APC
△김정근 18

◆HPM
△이종열 10

◆AMPP
△김상욱 7 △박천주 15

◆AIC
△김순식 37 △민홍식 23
△임채진 36 △정장환 11

◆AFB
△김수찬 13 △김숙진 12

◆AMPFRI
△공준영 30 △노치웅 33
△박민수 33 △박희성 33 △유화열 32

◆ACPMP
△임영수 8 △정관희 6
△문성호 9 △박구병 11
△오동천 10 △유정환 7

◆GLP
△계리원M허 21 △김동준 29
△김상철 30 △김성진 29 △김영찬 18
△김종호 17 △김진흥 30 △박대하 29
△박인전 29 △박종찬 30 △송재원 29
△양일석 30 △이강옥 30 △이진철 30
△임종호 11 △정해일 29 △조찬호 27
△지완구 29 △진종신 28 △차화칠 12
△채영신 30

◆ALP
△김성범 21 △김영준 19
△안승준 3 △황윤구 20

◆AFP
△김주원 14

◆ASP
△김관영 26 △김천수 28

◆IFP
△김석빈 12 △이해홍 12

◆ABKI
△최희남 1

◆KFL
△이은자 16

◆FNP
△고형봉 5

◆AWASB
△김수원 1

부두통압관리 시스템
[선박과 부두 안전을 위한 관제 및 위험 경보 Solution]

AIS 기반 선박 접안 감시설비

지희 일우인터내셔날은 Laser 기반 선박 접안감시 설비의 Market Share 1위의 기업으로 Oil & Gas, 발전, 철강의 물류 입/출하 부두에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돕는 감시 시스템을 자체 설계 및 제작하여 국내외 많은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선박의 대형 해상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좀 더 스마트한 충돌 및 사고 예방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기반의 충돌 예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로 별 제한속도 초과 Alarm, 선박이 부두 시설물에 충돌할 수 있는지를 예측 감지하여 위험을 사전에 대처하도록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

지희의 주요 고객으로는 KEPCO, KOGAS, KNOC, SK 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POSCO 등의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POSCO건설, 롯데건설 등의 건설회사 그리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STX POS 태영상선, 흥아해운, 우일상운, 현대해양서비스 등의 해운회사입니다.

선박항만 모니터링,
해양위성통신 전문기업
(주)일우인터내셔날 입니다.

ILWOO INT' CO., LTD.
www.ilwooin.co.kr

대표이사 우 진 태 (원자핵공학과 71학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311 (상대원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
TEL. 031) 608-2451 (代), 070-4420-2141 (直)

루이까스텔 우수 고객 초청 행사

우수 고객 30명에게 알펜시아 트룬CC 라운딩 및 136평 에스테이트 1박2일 숙박 제공!

행사기간 : 2015년 7월1일(수)~8월31일(월) 까지
대상고객 : 행사 기간동안 누적 구매 금액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中추첨
기 타 : 전국 루이까스텔 매장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루이까스텔 홈페이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www.louiscastel.com
(주) 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02)6414-5469, 5472

JOINT YOOCHANG
THERMAL SYSTEMS CO., LTD.
www.ycthermalsystems.com

THE WORLD BEST JOINT LEADER

30년 이상의 역사,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납품.

대표적 적용 사례 (빌딩)

- Burj Khalifa (세계 초고층 빌딩, 162층)
- 인천 국제공항
- 잠실 롯데 슈퍼타워
- 부산 국제 금융센터
- 63빌딩
- 킨텍스
-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 아이파크 해운대
- 삼성 타워 펠리스
- 동북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대표적 적용 사례 (플랜트)

- 호남 한국 화력발전
- 울산 한화 케미칼
- 여수 열병합 발전소
- LG 화학
- 고려아연
- S-Oil
- OXY Oman

세계 품질의 신축이음관 선두기업으로 정부품질 인증과 UL 인증을 포함한 25개 특허, 41개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를 보유.

조인트 유창 써멀 시스템 ㈜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품질 향상으로
신축이음관 설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월등한 신축량으로 조인트 설치 개소를
줄여 시공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유지보수 기술을
적용시켜 안정적이고 고 능률의
piping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 개발로 품질 향상을
통해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칼리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신축이음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Yoochang Ball Joint Seismic Cycle Test Report

미국 캘리포니아 San Bemardin County Medical Center에서 진도 8.3의 설계 조건에 따른 Ball Joint Seismic Test 결과 유창 Ball Joint는 Seismic Test에 합격하여 버즈 칼리파 타워 소방배관에 시공됨.

조인트유창의 주요 생산제품

■ 플랜트용

Spare Pak Slip Joint

Spare Pak Ball Joint

Spare Pak Multi Joint (초고온, 고압용 LS NIKKO 적용)

Dual Pak Underground Slip Joint

■ 빌딩용

Dual Pocket Multi Joint

Dual Pocket Slip Joint

Intergral Spare Pak Slip Joint

Intergral Spare Pak Ball Joint

Vico Joint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182-35(가현리 317-14) TEL : 031-988-9205~6 FAX : 031-988-9208 ycbonsa1@chol.com
부설연구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31(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탈타워 빌란트Ⅱ 1201호 TEL : 02-2081-1970~7 FAX : 02-2081-1978
www.ycthermalsystems.com